소년단

1962.11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배우며 준비하자!

《소년단》 1962년 11호 내용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새 내각을 조직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1 차 회의에서는 김 일성 원수님을 수반으로 하는 공화국 새 내각을 다음과 같은 성원으로 조직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직위	성명	직위	성명
내각 수상	김 일성		
내각 제 1 부수상	김 일	민족 보위상	김 창봉
내각 부수상	김 광협	사회 안전상	석 산
내각 부수상	김 창만	외무상	박 성철
내각 부수상	정 일룡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	정 준택
내각 부수상	남 일	국가 건설 위원회 위원장	남 일
내각 부수상	리 종옥		
내각 부수상	리 주연	국가 과학 기술 위원회 위원장	오 동욱
내각 부수상	정 준택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1 차 회의에서 조직된 김 일성 원수님을 수반으로 하는 새 내각 성원들

직위	성명	직위	성명
경공업 위원회 위원장	박룡성	로동상	백선일
농업 위원회 위원장	김만금	내무상	박문규
금속 화학 공업상	리종옥	도시 경영상	렴대준
전기 석탄 공업상	정일룡	고등 교육상	김종항
기계 공업상	조동섭	보통 교육상	윤기복
수산상	최용진	문화상	박웅걸
림업상	정동철	보건상	최창석
도시 및 산업 건설상	김병식	국가 건설 위원회 제 1 부위원장	김응상
농촌 건설상	김병익	평양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	강희원
교통상	김회일	과학원 원장	강영창
체신상	박영순	내각 제 1 사무국장	최재우
재정상	한상두	내각 제 5 사무국장	오대봉
상업상	김세봉	설비 및 물자 총국장	김양률
수매 량정상	한대영	경공업 총국장	리량숙
무역상	리일경		

최고 인딘 회의 상임 위원회를 선거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1 차 회의에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성원을 다음과 같이 선거하였다.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위원장	최용건		
부위원장	박정애	위원	리영호
부위원장	홍명희	위원	김왈룡
부위원장	강량욱	위원	김옥순
부위원장	백남운	위원	로익명
부위원장	박금철	위원	김창덕
서기장	림춘추	위원	송영
위원	리효순	위원	리만규
위원	하앙천	위원	리면상
위원	현무광	위원	계응상
위원	박신덕	위원	리재복
위원	최현	위원	도유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재판소장을 선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1 차 회의에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재판소장으로 **김 익선** 선생님을 선거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검사 총장을 임명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1 차 회의에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검사 총장으로 **박 세창** 선생님을 임명하였다.

번영하는 조국과 함께 우리의 행복 영원하리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이어 받은 우리 인민 정권은 우리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을 오늘과 같은 행복한 사회주의 지상 락원에서 살게 해 주었고 더욱 휘황한 공산주의 앞날에로 계속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1 차 회의에서는 전체 인민의 끓어 넘치는 마음을 담아 김 일성 원수님을 또다시 내각 수상으로 모시였습니다. 이는 실로 우리 인민의 더 없는 영광이며 행복입니다.

회의에서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 앞에 휘황한 앞날을 펼쳐 주시는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이미 우리 나라는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령도 밑에 지난날 가난하고 못살던 나라로부터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데 근심걱정이 없고, 무엇이던 마음만 먹으면 큰 공장도, 집체 같은 기계도 척척 만들어 내 쓸 수 있는 사회주의 공업—농업의 나라로 되였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어디 가나 큰 공장 굴뚝들이 우뚝우뚝 솟아 푸른 하늘에 검은 연기를 펑펑 내 뿜고 있으며 산에 가면 황금산, 들에 가면 황금벌, 정말 사회주의 지상 락원으로 되였습니다.

사람들은 저저마다 마음껏 배우며 일하며 병이 나도 무료로 치료를 받고 로인들은 존경을 받고 어린이들은 탁아소 유치원에서 재롱스럽게 뛰놀며 조국 앞날의 믿음직한 일군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대학만 해도 93 개나 되며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학생이고 이미 중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 되였는데 이제 1964년부터는 또 9년제 기술 의무 교육제까지 실시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인구 한 사람 앞에 차례지는 학생수 비률에서도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입니다.

오늘의 생활도 좋지만 이제 우리 당 제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 소리 울려라
사람들 행복하게 사는
내 조국 한 없이 좋네
우리의 아버진 김 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며 학교에 오고 갈 때면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령도를 따라 번영하는 사회주의 조국에 사는 자랑과 기쁨으로하여 가슴이 부푸러 오릅니다.

이것이 어찌 우리 소년단원들 만이 느끼는 자랑과 기쁨이겠어요. 공화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가 다 느끼는 한결 같은 기쁨과 자랑이지요.

그러기에 우리 나라 전체 인민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당과 김 일성 원수님께 의탁하고 오직 그가 가리키는 길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아 갑니다.

당과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이와 같은 뜨거운 존경과 충성의 마음은 이번 진행된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도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이번 선거에 100% 참가하여 100%의 찬성 투표로써 당과 공화국 정부와 김 일성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의 힘을 온 세상에 시위하였습니다.

4차 대회가 펼쳐 놓은 7 개년 계획 말에 가면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 공업의 나라로 될 것이며 우리 인민의 생활은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 나라 로동자 아저씨들은 7 개년 계획의 두번째 해인 올해 6 개 고지를 점령하는 데서 이미 큰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 따라 천리마의 기세로 내 닫는 우리의 근로자 아저씨들은 올해 여러 가지 곤난을 무릅 쓰고 자기들 앞에 나선 과업을 훌륭히 실행하였습니다.

특히 알곡 500만 톤 고지 점령에 나선 우리의 협동 농장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심한 가물과 석달 이상이나 되는 긴 장마, 그리고 네 번이나 되는 큰 홍수, 거기에다 랭해와 병충해도 있고 폭풍까지 불어 왔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 내고 500만 톤을 넘는 대풍작을 이룩하였습니다.

이밖에 직물, 주택, 강철, 수산물, 석탄 고지들에서도 모두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의 가리킴 따라 명년 1963년에는 금년에 이룩한 승리를 계속 튼튼히 하면서 새로운 더욱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명년에도 농사와 경공업 발전에 힘을 넣게 되며 이와 함께 중공업 공장들을 더 잘 꾸리며 미제와 그 앞잡이 군사 팟쇼 도당들이 침략을 막을 수 있게 나라의 군사 장비를 더욱 잘 갖추는 데 힘을 기우리게 됩니다.

그리고 중공업 부문에서는 모든 공장들을 더 잘 꾸리고 광산 탄광 부문에 힘을 집중하게 됩니다. 특히 기계 제작 공업에서는 아직 우리에게 부족한 큰 기계들을 만드는 공업을 1~2년 내에 빨리 넓혀서 발전소, 탄광, 광산들을 비롯한 큰 공장들에 필요한 기계들을 더 많이 만들어 보내게 됩니다.

경공업에서는 금년에 이룩한 2억 5천만 메터 고지를 튼튼히 하면서 1964년에 가서 3억 메터의 천을 짜게 됩니다.

그러자면 2·8 비날론, 청진 화학 섬유, 혜산 방직 공장들에서 옷감 원료들을 더 많이 생산하야하고 중앙 공장과 지방 공장들이 모두 힘을 합해 더 많은 천을 짜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지방 공업 공장만 해도 2천 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1964년에 가서 이 지방 공장들에서만도 1억 메터의 천과 7만~8만 톤의 종이를 비롯해서 간장, 된장, 기름등 지방에 필요한 일용품들을 자체로 생산해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년에 농촌 경리에서는 이미 점령한 5백만 톤 고지를 더욱 튼튼히 하면서 벼 수확을 더 높이게 됩니다.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1964년에 가서 공화국 북반부 전체 인민들이 이밥만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벼만 해도 300만 톤 이상 생산할 과업을내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참으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훌륭한 과업이며 또 능히 해 낼 수 있는 일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이제 이를 위해 압록강 관개 공사를 비롯하여 황해남도의 례성강 관개 공사와 서해안의 간석지 개간 공사등도 더 해서 논면적을 많이 늘쿠게 됩니다. 그리고 벼 수확을 높이기 위해 밭벼도 대대적으로 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알곡이 많아지면 풀을 먹는 가축들 뿐만 아니라 돼지, 오리도 더 많이 길러 1964년에 가서 고기 생산량이 20만 톤에 이르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건설자 아저씨들은 매년에 도시와 농촌에 각각 10만 세대 씩의 주택을 지어 우리 나라 인민들이 더 좋고 편리한 집에서 살게 해 줄 것입니다.

이리하여 1964년에 가면 우리 인민은 모두가 다 기와집에서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 옷을 입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 이제 1964년에 가서는 그동안 준비하여 온 9년제 기술 의무 교육제까지 실시될 것이니 이 얼마나 가슴 벅차오르는 휘황한 앞날입니까!

우리 나라 력사에서 언제 이와 같은 때가 있어 보았습니까!

그러기에 지금 우리 나라 전체 인민들은 당과 김 일성 원수님께서 펼쳐 주신 이 휘황한 앞길을 따라 천리마의 고삐를 더욱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남반부 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 군사 파쇼 도당들의 발굽 밑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도시와 농촌, 어촌 그 어디에 가나 사람들은 일터를 잃고 거리와 마을을 헤메고 있으며 어린이들은 학교는 고사하고 밥 달라고 울며 졸라대다 기진해 쓰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날 그처럼 쌀고장이라고 하던 남조선이 오늘은 미국에서 썩은 쌀을 해마다 400만~500만 석을 사 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굶주림의 세상으로 되였습니다.

미제와 군사 파쇼 도당들은 남조선을 이처럼 비참한 생지옥으로 만들어 놓고도 남반부 인민들을 구원할 데 대한 우리 공화국 정부의 제의를 반대하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한사코 반대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이룩하지 않고서는 남조선 인민들을 이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물러 가게 하고 조선 인민 자체의 손으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시켜야 합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 군사 파쇼 도당들이 제 아무리 날뛰여도 조국의 통일 독립은 달성되고야 말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전체 아버지 어머니들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더 높은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곧 조국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며 비참한 남반부의 아버지,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구원 하는 길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그를 위해 모든 힘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우리들도 아버지 어머니와 형님 누나들의 뒤를 따라 공부도 잘하고 소년단 생활에도 더 잘 참가하여 모두가 우등, 최우등생이 되며 자기의 분단이 모범 분단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김 일성 원수님의 참된 전사로, 번영하는 조국 앞날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씩씩하게 배우며 준비해 나아 갑시다.

어디가나 황금산 어디가나 황금벌

풍년의 노래'소리 흥겨운 새날 마을

본사 기자 최 죽산

늦은 가을 해'빛이 풍년 든 대지를 내리쪼이는 어느 날 나는 신천군 새날 협동 농장을 찾아 갔습니다.

산'더미 같이 높이 솟은 벼낟가리 우에선 오색 기'발이 마가을 바람에 펄럭이고 탈곡장은 탈곡기 돌아 가는 소리와 흥겨운 노래 소리로 온통 흥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가을이 오면 언제나 그러했지만 탈곡에 신'바람이 난 협동 농장내 농민들의 얼굴마다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기쁨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탈곡장엔 500만톤 고지를 점령한 협동 농장 아저씨들의 일'손을 돕느라고 모여 온 새날 중학교 소년단원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늙은 한 할아버지 곁에서 북데기를 나르던 김 련애가 《할아버진 좀 쉬세요》하고 비를 빼았다 싶이 받아 들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참 기특하기두 …내 걱정일랑 말고 저기 어린애 어머니들의 일'손이나 도와 줘라. 난 아직 일 없다.》라고 하시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때마침 쉬는 시간이 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올해 예순 넷에 나시는 김 호익 할아버지였습니다.

담배를 피워 무신 할아버지는 소년단원들에게 억울했던 지난 날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였습니다.

옛날 이 마을에는 황가라는 악착한 지주놈이 있었답니다. 할아버지는 40 세가 되도록 장가도 못들고 이 지주놈의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셨답니다.

40이 넘어 첫 아들을 본 날 할아버지는 너무도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일하다 쉴참에 잠간 집에와 어린애 어머니 시중을 들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텅텅 토방 울리는 소리가 나더니 지주놈이 벌컥 문을 열고 들어 서는 것이였습니다.

《아니 이놈들이 제 새끼 귀한 줄은 알면서도 일 귀한 줄은 몰라. 어서 나가 일하지 못할가…》

지주놈은 독살스러운 눈알을 부라리며 달려 들어 아이를 발'길로 냅다 차는 것이였습니다. 지주놈은 머슴에게 아이가 있으면 마음껏 부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할아버지네가 첫 아들 본 것을 달가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소년단원들은 모두 지주놈에 대한 증오로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억울했던 지난 날 이 석봉리 땅에서 지주놈의 천대와 착취를 받아 온 분이 어찌 호익 할아버지 한분이였겠습니까. 지주놈의 집에 쌀을 꾸러 갔다가 쌀은 고사하고 오히려 뜨거운 물'벼락을 맞고 쫓겨 왔다는 김 삼을 할아버지, 물세를 물지 않고 논물을 대였다고 발'길에 채워 수로에 빠져 죽을번한 현 한균 아저씨, 모두가 지주집 소작살이로 손바닥에 멍이 들고 등이 휜 사람들이였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옳바른 령도 밑에 해마다 농사를 잘 지여 오늘은 모두 부자가 된 것이였습니다 《금년 같은 대풍년은 처음 봤수다 왕가물이 들고 큰 장마까지 들었는데도 농사는 작년 보다도 더 풍년이웨다》.

금년 농사가 어떠냐고 묻는 나의 물음에 마을의 《공산주의 아바이》라고 불리우는 오 근식 로인이 대답하는 말씀이였습니다. 금년 이 할아버지네집만 하더라도 알곡 5톤에 현금 칠백원을 받게될 것이라는 것이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또 약 1톤이나 우대미까지 더 받게 된다는 것이였습니다.

《모두가 수상님의 덕분이지요. 쌀'더미를 보니 자꾸 춤만 추고 싶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가 이렇게 기쁨에 넘쳐 이야기 하는 것이였습니다.

새날 사람들의 이 기쁨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 속에서 불쑥 솟아 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곳 협동 농장내 농민들은 오늘의 풍작을 가져 오기 위해 금년 1월 20일 협동 농장에 오시여 주신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논에 정보당 50톤씩의 자급 비료를 내였고 왕대산과 석두산에 70리'길이나 되게 수로를 팠습니다 그리고 35정보의 땅에 밭벼도 심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이곳 사람들은 미제 원쑤와의 싸움에서 피를 많이 흘린 자기들의 사랑하는 고향 땅 우에 누구보다 먼저 공산주의 지상 락원을 꽃피우기 위해 한 사람 같이 일떠서 올해 500만 톤 알곡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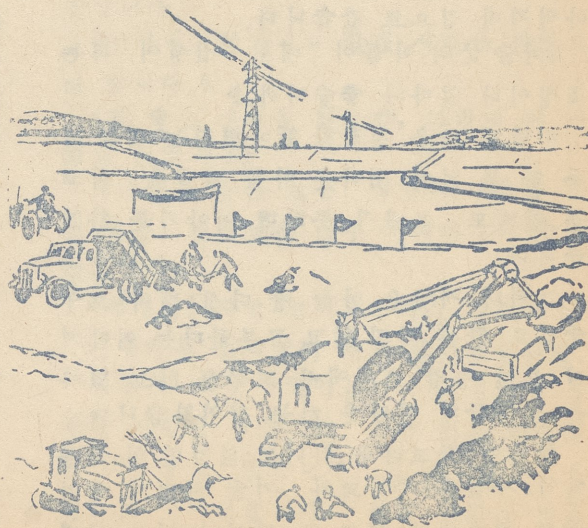
협동 농장 유선 방송실에서는 새날 중학교 써클원들이 지난 여름 전국 소년 예술 축전에서 1등을 한 기악 중주 《모범 분단의 자랑》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여 나는 정당 9톤씩이나 수확을 냈다는 구성 작업반의 오 근식 할아버지네 집을 찾아 갔습니다. 금년 70세인 할아버지는

《수상님이 교시 대로 농사를 지으니 금년에는 3년 먹고도 남을 쌀을 분배 받게 되였지요 게다가 작업반 우대미까지 더 받으면…》하고 기쁨에 찬 얼굴로 말씀하시는 것이였습니다.

고대등 같은 세간 짜리 기와 집에 다지오, 이불장, 재봉기를 즐빗하게 차려 놓은 이 할아버지네 집에선 옛날 천석'군 부자 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네 집을 나선 내가 70리나 뻗었다는 수로를 따라 왕대산 쪽으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흥겨운 노래 소리가 울려 왔습니다.

…흙손에 번개 일듯 미장을 다그치자
동무여 무얼 그리 생각 하나
이땅에 문화 주택 설계도 펼쳐 준
로동당 그 은혜를 생각했었네…

올해 10 만 동 농촌 문화 주택 건설에 나선 농촌 건설대 아저씨들이 궁

궐 같이 일떠선 집들에 창문들을 달며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내가 이곳 건설장에 들렸을 때였습니다.

《기자 동무 이번 왔던 김에 꼭 새집들이 하는 걸 보고 가셔야 합니다.》 하고 건설 대장 아저씨가 자랑삼아 말씀하시는 것이였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이 새집들에 이사를 온다는 것이였습니다. 금년에 300동이나 되는 문화 주택이 세워졌는데 래년에 200동만 더 지으면 7개년 계획이 끝나기 전에 이곳 협동 농장내 농민들은 모두가 문화 주택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관리 위원장 아저씨와 함께 마을의《학생 부자》라고 불리우는 오 군필 할아버지네 집으로 갔습니다.

《머슴'군의 아들이 대학 선생이 되는 세상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말을 시작한 할아버지는 왜놈 때 돈 한 푼 없어 귀여운 아들 딸들을 학교문 앞에도 보내지 못하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들 딸 다섯 명이 모두 수업료 한푼 내지 않고 공부한다는 이야기며 룡연 농업 대학에서 교원을 하고 있다는 맏아들의 자랑을 하는 것이였습니다.

옛날엔 학교라곤 하나도 없었던 이 석봉리에 지금은 중학교와 기술 학교가 들어앉고 대학생만 해도 70 명이나 되고 리내 인구 다섯 사람 중 한 사람은 학생이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니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령도 하에 석봉리는 억년 풍년이 드는 마을로, 모두가 공부하는 학생 촌으로 되였지요.

내가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스피카에서는《여기는 조합 유선 방송실입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영화 〈땅〉 1부를 상영 하겠습니다.》

하고 방송원의 쟁쟁한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이 조합에는 영사기까지 있어 늘 이렇게 영화를 상영 하는 것이였습니다.

어느듯 어둠이 깃들자 기와를 이은 문화 주택에 불이 켜져 마치 큰 도시와도 같았습니다.

《수상님이 창성 련석 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도시 부럽잖게 살 날이 머지 않았지요.

우리는 앞으로 저기에다 큼직한 구락부도 지을 예정입니다》라고 관리 위원장 아저씨는 창문 넘어 길게 뻗어 나간 산등성을 가리키며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는 나의 눈 앞에는 2층으로 지은 궁궐 같은 구락부에서 마음껏 즐기는 협동 농장내 농민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도 좋거니와 7개년 계획 말에 가면 이곳 농민들의 생활은 얼마나 더 좋을 것인가!)이런 생각을 하는 나의 마음은 한없이 기뻤습니다.

어린 가슴에 빛나는 오각별

—《조선 소년의 영예상》을 받은 평북도 운전군 운하 중학교 단 제3분단 위원장 김 상명 동무에 대한 이야기—

본사 기자 김 준규

그림 리 동춘

운전으로, 운전으로…

신의주 행 렬차는 쾌속도로 달립니다.

상명이는 차창을 열어 제꼈습니다. 시원한 가을 바람이 밀려 들어 와 그의 앞가슴에 안기며 펄펄 붉은 넥타이를 휘날려 줍니다. 상명의 가슴은 자꾸만 울렁거립니다.

(아버지와 형님이 계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가.)

《조선 소년의 영예상》 메달을 빛내며 사랑하는 고향으로 돌아 오는 그의 눈 앞에는 전쟁 때 미제 원쑤놈들에게 학살된 아버지와 형님의 생각이 떠 올랐습니다.

《뚜—》렬차는 어느 새 령미역을 지나 달리고 있습니다.

고향 마을이 가까와 올수록 분단 동무들의 정다운 얼굴들이 안겨 옵니다.

대도, 상필이, 춘실이, 옥실이…지금은 분단 동무들과 함께 뛰놀고 있을 백 락권 동무의 즐거운 얼굴도 보입니다.

인민반 3학년 때의 어느 날이였습니다. 상명은 한 달 동안 앓고 난 락권이를 찾아 갔습니다.

《너 어떻게 된 일이냐?》 상명은 걱정어린 말로 물었습니다. 그처럼 다정스럽게 함께 공부하며 뛰놀던 락권이가 왼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것이였습니다.

락권의 눈섭에 가랑가랑 눈물이 고이였습니다.

오래지 않아 4학년생이 된다고 기뻐하던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락권일 두고 나만 올라 가?)하고 생각해 본 상명은 머리를 가로 흔들었습니다. 상명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와 함께 진급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걱정 말어, 공부할 수 있을거야.》

상명은 썽긋 웃으며 락권이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후 상명이는 날마다 락권이를 업고 다니며 공부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락권이는 또 다시 오른 다리조차 쓰지 못했습니다. 그는 앉지도 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명이는 날마다 그의 집에 찾아가 그 날 배운 과목을 배워 주었습니다.

락권이는 상명이의 도움으로 훌륭히 학습해 나갔습니다.

락권이는 날마다 즐거워 하고 상명이는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명이에겐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느듯 학년말 시험이 닥쳐 온 것입니다.

온 밤을 생각한 상명은 선생님을 찾아 갔습니다.

《선생님, 락권이도 함께 시험을 받았으면 합니다.》

《참 좋은 생각을 했구만, 그런데 패 시험을 쳐낼가?》

락권이를 도와 주는 상명의 마음을 알고 있는 선생님은 매우 기뻐하시며 말씀했습니다.

《선생님!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상명이는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되여 락권이는 자기 집에서 학년말 시험을 쳤습니다. 그는 어느 과목이나 최우등을 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온 학교에 알려졌습니다. 방학 동안에 병원에 가 치료를 받은 락권이의 다리는 아무

일 없이 나아졌습니다. 상명이는 락권이와 함께 4 학년이 되였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상명이를 분단 위원으로 선거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분단은 《모범 분단》 칭호 쟁취 운동에 궐기했는데 이 때 상명은 9 반 동무들을 도와 줄 분공을 받았습니다.

9 반에는 전쟁 때 원쑤놈들의 폭격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은 성렵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아버지, 어머니의 원쑤를 갚는다면서 군사 놀음에만 정신을 팔고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학교에 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둑어둑 땅거미지는 어느 날 저녁 무렵이였답니다.

상명이는 장락동 마을을 향해 걸고 있었답니다. 분단 위원이 된 후 처음으로 귀중한 위임을 받은 상명이의 가슴은 이상스럽게 울렁거립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불안스럽기도 했습니다.

마을에 다다른 그는 먼저 반실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반실은 텅 비여 있지 않겠습니까!

《땅! 상필이 죽었다…》

《돌격 앞으로!》

반실 뒤켠에서 아이들의 떠들썩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9 반 동무들이 군사 놀음을 하고 있은 것입니다. 상명이는 그리로 뛰여 갔습니다.

《애들아 함께 놀자》

그는 우선 이렇게 말해 놓고 힐끈 성렵이를 보았습니다.

《흥! 열리는구나, 모를 줄 알구?》

성렵이는 코 밑을 쓱 문지르더니 주먹을 흔들며 울러 메였습니다.

《옳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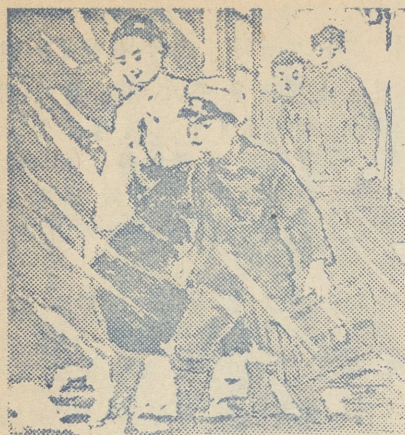
《옳아.》

다른 아이들도 왁짝 떠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상명은 아무 말도 못 하고 되돌아 섰습니다. 상명은 9 반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험할 줄 몰랐습니다.

산 기슭을 따라 걷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의 눈 앞에는 산수 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서 있는 성렵의 당황해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명이는 이러한 성렵이를 볼 때마다 늘 제 잘못처럼 얼굴을 붉혀 왔습니다.

(빨리 모범 분단의 영예를 지녀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분단 위원인 내가 그를 돕지 않고 누가 돕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그는 분단 앞에 《모범 분단》 기'발이 펄펄 휘날릴 그 날의 기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음은 자꾸만 그 날로 달립니다.

상명은 가던 발'길을 되돌렸습니다.

성흘이네 집에 모인 9 반 동무들은 서로 웃으며 떠들썩하고 있었습니다.

《그 앤 다시 못 올거야.》

《상명이가 날마다 오면 군사 놀음도 다야.》 성렵이와 성흘이가 주고 받는 말입니다. 이럴 때 상명이가 성큼 들어 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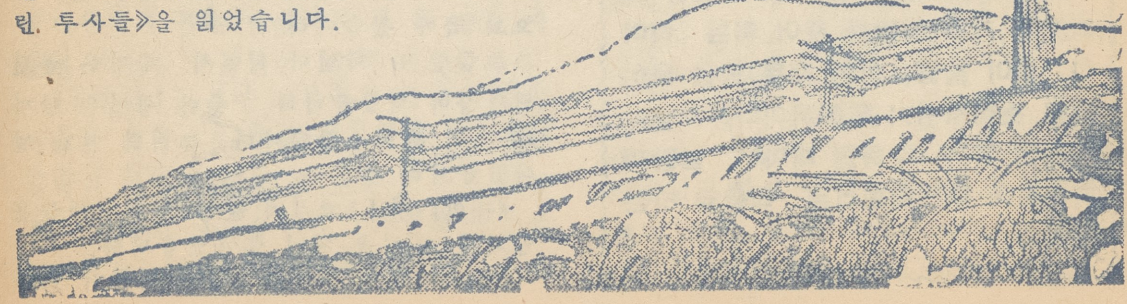
《재미 있었니? 이젠 공부하자꾸나.》

상명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방 안에 모였던 아이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해서 상명이를 쳐다 보는 것이였습니다. 이 날 저녁 공부는 그리 잘 되지 못했습니다.

상명이한테서 《의 좋은 형제》라는 옛'이야기를 듣고 난 동무들은 모두 《잘들었어》 하고 뿔뿔이 헤여져 갔던 것입니다.

상명이는 어이 없이 돌아 왔습니다.

그러나 상명이는 락심하지 않았습니다.

상명이는 언제나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실에서 《고난의 40 일》, 《세 아동에 대한 이야기》 등 회상기와 《당을 따른 어린 투사들》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상명이의 가장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그는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의 높은 혁명 정신과 아동단원들의 모범을 본 받아 그들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동무와 집단을 사랑하는 참된 소년단원이 되리라고 다짐하였습니다.

어느 날이였습니다. 아침에 멎었던 장마 비는 저녁녘이 되여 다시 억수로 퍼부었습니다.

이 날도 상명이는 9 반 동무들을 찾아 갔는데 반실에는 성렵이, 성흘이, 용진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가 온다고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학습을 끝내고 반 동무들과 헤여져 집으로 돌아 가자니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세 동무가 다 학습에 뒤떨어진 동무입니다. 집에 찾아 가면 싫어 할건 뻔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형님은 어떻게 했을가?)

상명이는 문득 전쟁 때 원쑤놈들에게 생매장 당한 분단 위원장이였던 자기 형님을 생각했습니다. 형님은 공부도 잘 했지만 동무와 집단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형님이 탄 14 장의 상장에 대하여 상명이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럴 수 없겠는가.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 아동단원들처럼 하면 못 할게 뭔가.)

상명이는 한 동무씩 찾아 가 도와 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상명이가 마지막으로 성렵이

네 집에 찾아 갔을 때 밤은 퍼그나 깊었습니다.

《아니 너?》 성렵이네 형님이 놀라며 상명이를 맞았습니다. 그 바람에 성렵이도 덩달아 일어 섰습니다.

형님의 엄한 눈'길과 마주친 성렵이는 할 수 없이 상명이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거의 학습이 끝나 갈 때였습니다.

《상명이 여기 있니?》 하고 상명이의 어머니가 찾아 왔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데리러 온 것입니다.

성렵이와 그의 형님은 비'줄기를 헤치며 밤'길을 가고 있는 상명이와 그의 어머니를 오래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 어느 금요일 날이였습니다. 성렵이는 또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상명이는 방과 후에 그를 찾아 장락동 마을로 갔습니다.

상명이가 펑퍼짐한 둥성이 길을 걸고 있을 때였습니다.

《너 또 분단 위원장에게 일러 바치겠지?》 동무들과 군사 놀음을 하던 성렵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칠학산과 나란히 선 보오산 돌바위 꼭대기에 서서 집으로 돌아 가는 춘실이에게 소리치고 있는 것이였습니다.

《그럼 뭐.》 춘실이는 서슴 없이 대답하는 것이였습니다.

《너 맞아 보겠니. 거기 서라!》 성미 급한 성렵이는 주먹을 부르 쥐고 급히 내려 오다가 그만 돌바위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순간 상명이는 성렵이를 부르며 뛰여 갔습니다. 춘실이는 뜻밖의 일에 너무도 놀래서 어쩔 줄 몰라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상명이는 웃옷을 훌 벗어 던지고 손'수건을 꺼내 피 흐르는 머리를 싸 맸습니다. 그리고 재껴 등에 업고 진료소를 향해 뛰였습니다. 춘실이도 성렵의 신과 상명의 저고리를 걷어 안고 뒤 따랐습니다.

성렵이는 머리도 터지고 발도 시그러져서 며칠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군 병원에 입원하게 되였습니다.

일요일에 상명이는 춘실이와 함께 그를 찾아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원쑤를 갚겠다는 그 마음은 좋아.》 하고 상명이는 성렵이와 나란히 앉아서 《세 아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 자기의 혀를 깨물어 끊고 끝까지 비밀을 지킨 광춘이를 생각해 봐. 그리고 장 승구란 지주 놈을 처단케 한 광춘이의 지혜롭고 용감한 행동은 다 아동단 조직 생활을 잘 했기 때문이야.》

상명이는 이야기를 다 하고 성렵이와 춘실이를 둘러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명아!》 성렵이는 상명이를 끌어 안았습니다.

춘실의 얼굴도 붉게 상기되여 있었습니다.

상명의 마음은 끝 없이 기뻤습니다. 이날 그는 춘실이와 함께 훨훨 날아 가듯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초급반 1 학년이 되면서 상명은 분단 위원장이 되였습니다. 분단 생활은 날마다 재미 있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였습니다.

《아이, 곶!》 교실에 들어 선 처녀애들은 일제히 손'벽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책상 우에는 붉은 리봉이 하나씩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송이의 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좋아하는 처녀애들을 보며 남자 애들도 벙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색갈이 마음에 드니?》 성렵이가 처녀애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꼭 들어.》 처녀애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이 때 춘실이가 벌떡 일어 나며 자기 동무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처녀애들은 저마다 책상 안에서 붉은 넥타이를 하나씩 꺼내 들고 벙글벙글 웃고 있는 남자애들에게로 우르르 밀려 갔습니다.

처녀애들의 리봉이 낡은 것을 본 남자애들은 서로 의논하고 리봉을 하나씩 만들어 왔고 처녀애들은 또 남자애들의 넥타이가 낡은 것을 보고 넥타이를 하나씩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남자애들은 남자애들끼리 녀자애들은 녀자 애들끼리 서로 몰래 의논하고 몰래 만든 것이 이렇게 한 날 한 시에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군!》 녀자애들이 남자애들에게 붉은 넥타이를 다 매 줬을 때 분단 지도원 선생님이 들어 오셨습니다.

《선생님!》 분단 동무들은 일제히 분단 지도원 선생님을 둘러 쌌습니다. 이 순간 상명의 가슴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랑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상명의 꾸준한 노력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친 분단은 마침내 《모범 분단》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습니다.

× × ×

《뚜—》 렬차는 드디여 운전역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서니 어머니와 분단 동무들이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명아!》

상명이는 와락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전쟁 때 미제 원수놈들의 그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이겨 낸 어머니, 아버지가 학살 되고 형님이 생매장 당했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어머니, 그 어머니가 오늘은 상명이의 앞가슴에 빛나는 《조선 소년의 영예상》 메달을 만지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은 오늘의 행복과 영예를 가져다 준 당과 김 일성 원수님께 드리는 끝 없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였습니다.

이윽고 상명이는 《모범 분단》 기'발을 휘날리는 분단 대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옆에는 락권이, 성렵이, 용진이, 성흘이가 나란히 섰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단인가,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 더욱 힘써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참된 아들이 되리라.》 그들은 이렇게 굳게 굳게 다지며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였습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닭은 왜 작은 돌을 먹을가요?

닭은 무엇이든지 통채로 먹는다. 그리고는 작은 돌들을 주어 먹는 것이다. 닭이 돌을 먹는 것은 먹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이다.

돌은 위가 수축할 때마다 낟알과 마찰되며 부스러뜨리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광주 학생 운동

김 종률

광주 학생 운동은 지금으로부터 33 년 전에 우리 나라 청년 학생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밑에 당시 우리 나라를 짓밟고 있던 왜놈들을 반대하여 싸운 학생들의 대중적인 애국 운동이였습니다.

왜놈들은 1910년에 우리 나라를 삼킨 후 조선 인민들을 악독하게 착취하였습니다. 악귀 같은 놈들은 우리 나라 농민들이 피땀을 흘리면서 지어 놓은 쌀과 우리 나라의 귀중한 보화들을 마음 대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놈들은 조선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권리마저 빼앗았습니다.

놈들이 조선 땅을 강점하기 전에는 우리 나라에 3천 여 개의 학교들과 수 많은 서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놈들은 이러한 학교들을 다 없애 버리고 애국적인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실로 왜놈들이 둥지를 틀고 있을 때의 조선은 우리들이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암흑의 천지였습니다. 우리 나라 학생들은 마음 대로 공부할 자유는 고사하고 말할 자유까지 가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 학생들은 왜놈들이 우리 나라를 빼앗은 첫 날부터 그놈들을 반대하여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1926년부터 1928년까지의 3 년 간에만 해도 우리 나라 학생들은 왜놈들을 반대하여 219 차례나 동맹 휴학(학생들이 단체적으로 학교에 나가지 않고 투쟁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조선 학생들에 대한 왜놈들의 악독한 행동과 멸시는 날이 갈수록 혹심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놈들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적개심과 분노는 더욱 높아 갔습니다.

그러던 중 1929년 10월 30일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전라남도 광주 중학교에 다니는 일본인 학생이 아무 리유도 없이 조선 녀학생들을 깔보는 참을 수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조선 학생들은 격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분노한 조선 학생들은 그 일본 학생을 붙잡아 놓고 잘못을 빌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였겠습니까. 이 사실을 안 일본 경찰놈들은 달려와 조선 학생들을 때리고 선진적 학생들을 잡아 갔던 것입니다.

놈들에 대한 우리 나라 학생들의 적개심과 분한 마음은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선진적 학생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밑에 11월 3일을 계기로 큰 시위 운동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정한 날은 왔습니다. 이 날 광주 시내 조선 학생들은 일제히 학교에 나가지 않고 시위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조선 학생들은 이르는 곳 마다에서 일본 학생들을 습격하였고 광주에 있는 일본인 신문사에 쳐 들어 가 악질 일본놈들을 처단하고 공장 기계들을 쳐 부셨습니다. 거리에서는 왜놈을 반대하는 조선 학생들의 연설이 벌어졌습니다. 광주 시민들도 모두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나섰습니다.

학생들의 투쟁에 겁을 먹은 왜놈들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총칼을 내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애국심에 가득 찬 조선 학생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1월 11일에는 더 큰 시위 운동이 일어 났습니다. 학생들은 《일제를 타도하자!》, 《식민지 노예 교육 제도를 없애라!》등의 구호를 높이 웨쳤고 삐라를 뿌리면서 광주 시내를 행진하였습니다.

시위 대렬에는 녀학생들과 나 어린 보통 학교 학생들도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내 로동자들과 시민들 그리고 부근에 있는 농민들은 학생들의 투쟁을 힘껏 도왔습니다. 학생들의 기세는 실로 높았습니다.

광주 학생들이 이와 같이 싸운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왜놈들에 대한 쌓이고 쌓였던 격분은 화산처럼 폭발하였습니다. 이리하여 평양, 서울, 개성, 함흥, 신의주, 부산 등 큰 도시들을 비롯하여 전국의 학생들이 광주 학생들의 투쟁에 따라 일어 섰습니다.

우리 나라 청년 학생들의 이 애국적 투쟁은 6 개월 간이나 계속 되였고 여기에는 200 여 개의 학교에서 실로 6만 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습니다.

광주 학생 운동은 원쑤 왜놈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 운동에서 우리 나라 학생들은 열렬한 애국심과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전 세계에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일제 통치하에서는 우리 나라 청년 학생들의 참다운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나라 청년 학생들의 참다운 행복과 배움의 길은 해방후 인민 주권 하에서 비로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공화국 학생들은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마음껏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한 조상의 피를 이어 받았고 한 날 한 시에 해방된 남조선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간악한 원쑤 미제와 그 앞잡이 도당의 발'굽 밑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부할 자유는 고사하고 헐벗고 굶주리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양키놈들의 총탄에 맞아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미제 원쑤놈들 때문입니다. 때문에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미제를 이 땅에서 몰아 내기 위하여 힘차게 일어나 싸우고 있습니다.

특히 1960년 4월에 있은 인민 봉기에서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인민들과 함께 리승만 역도를 타도하고 미제 원쑤놈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 4월 봉기가 있은 이후 남조선 인민들과 학생들의 투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1960년 4월부터 1960년 말까지에만 하여도 642 차례의 학생들의 투쟁이 일어 났고 여기에 389,500 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오늘 남조선 학생들이 희망하고 있는 자유와 행복스러운 생활은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께서 령도하는 공화국 북반부와 같은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공부를 더 잘 하고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껏 도와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여 불쌍한 남조선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구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향토를 지켜

—공화국 영웅 김 희천 형님에 대한 이야기—

1951년 2월.

희천 형님이 비행기 사냥'군조원이 된지 사흘 째 되는 날 아침입니다.

쿵 쿵… 전선이 가까운 이곳 강원도 화천 부근 마을에는 늘 포성이 울려 왔습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한 눈 감고 방아쇠를 힘껏 당기니
미국놈의 비행기 막 떨어진다.

노래 부르며 학교 가는 소년단원들의 뒤'모습을 지켜 보는 형님은 어쩐지 부끄러웠습니다.

아직 미국놈의 비행기를 한 대도 떨구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더구나 이 날 따라 한 대도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훌륭히 수행할 자신이 있습니다. 웃으운 이야기이지만 인민 학교 때 마을 아이들은 날 보고 고무총〈명사수〉라고 했습니다. 미제 원쑤놈들의 폭탄과 총탄에 쓰러진 부모 형제들의 원쑤를 꼭 갚겠습니다.》

중대 민청 총회 때 형님은 이렇게 결의해 나섰던 것입니다.

사실 형님은 어릴 때 고무총을 가지고 다니며 곧잘 새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반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를 《명사수》라고 부러워했습니다.

형님은 황해 제철소에서 일하며 배우다가 1950년 7월에 인민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락동강 계선까지 원쑤를 무찌르며 나갔다 온 19 세의 희천 형님은 벌써 많은 군공을 세웠습니다.

소년단원들의 노래 소리를 듣고 있던 형님은 이제라도 적기가 나타나기만 하면 단방에 쏘아 떨굴 것만 같았습니다.

이 때였습니다. 린제 쪽에서 미국놈의 구라망 4 대가 으르렁대며 날아 왔습니다.

《전투 준비!》

형님은 원쑤의 비행기를 노려 보며 고사 기관총을 틀어 잡았습니다.

《쾅! 쾅!》 원쑤놈들은 화천 시내에 마구 폭탄을 떨구었습니다. 방공호를 향해 뛰여 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기총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자즈러지게 들려 왔습니다. 희천 형님의 가슴은 막 찢어지는듯 아팠습니다.

형님의 조준경 안에 적기 한 대가 들어 왔습니다. 형님에게는 그것이 저주로운 미국놈들의 상판으로 보였습니다.

적기는 기웃뚱하더니 형님이 있는 쪽을 향해 곧추 내려 곤지기 시작했습니다.

《뚜루룩…》

형님은 손잡이를 힘껏 틀어 잡고 그놈의 심장부(동체)를 겨누고 압철을 눌렀습니다. 다른 쪽에서 포탄과 폭탄이 련거퍼 날아 와 전호를 파헤쳤지만 형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올려 쏘는 고사총탄 앞에 겁을 먹고 한 놈이 달아나자 이번에는 다른 놈이 미친듯이 달려 들었습니다.

《앗!》형님의 오른 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부사수 아저씨는 제꺽 붕대를 꺼내여 상처를 싸 매 주었습니다.

형님은 계속 복수의 불벼락을 안기였습니다.

이 때 원쑤의 비행기 동체에서 불이 번쩍 했습니다.

《명중!》 부사수 아저씨가 환성을 올렸습니다.

적기는 허둥지둥 연기를 뿜으며 내빼더니 마을 저쪽 500 메터 지점 산 기슭에 곤두박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다른 놈들도 다 남쪽으로 내 빼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형님과 싸운 적기는 주도기였습니다.

《만세!》

《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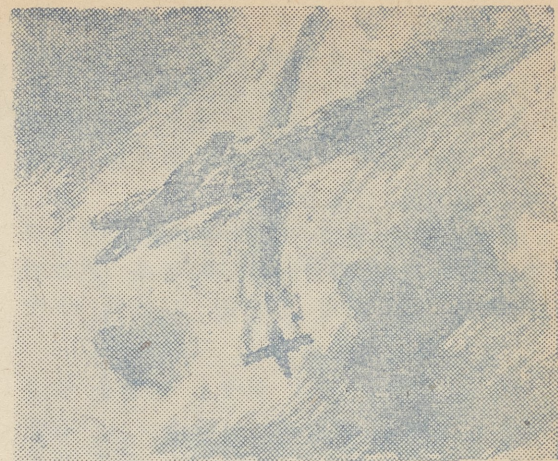
얼마 후 마을 저 쪽에서는 환성이 터져 왔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저주로운 원쑤놈의 비행기를 둘러 쌌습니다.

이 날 저녁 중대 전투 총화에서는 적기를 직접 맞받아 싸운 희천 형님의 용감성과 적기를 떨군 공로가 높이 평가되였습니다.

형님은 국기 훈장 3 급을 수여 받았습니다. 그 후 형님네 사냥'군조는 강원도 양구에 이동되였습니다.

여기에는 춘천과 린제로 통하는 두 갈래의 군용 도로가 있고 큰 다리가 있었는데 전선으로 중요한 군수 물자를 날랐습니다.

희천 형님네가 차지한 고지 뒤에는 우리 인민 군대의 포 진지가 있어 날마다 적들을 족쳐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 적 비행기는 날마다 수십

번씩 날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냥'군조의 맹렬한 공격에 겁을 먹은 놈들은 폭탄을 안고 진지 정면으로 내려 오다가도 옆으로 비껴 나가 떨구군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였습니다.

적기 4 대가 또다시 정면으로 날아 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희천 형님은 증오의 불벼락을 퍼부었습니다. 적기 한 대가 진지 앞 얼마 되지 않는 곳에 직통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지는 인민 군대 아저씨들의 만세 소리로 들끓었습니다. 원쑤놈들은 도망쳐 갔습니다. 이윽하여 적기 14 대가 또 나타났습니다. 원쑤놈들은 이 번에는 좌우 사방으로 덤벼 들었습니다.

《동무들! 목숨을 바쳐 최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수행합시다. 부모 형제들의 원쑤를 갚읍시다》.

정치부 중대장 아저씨의 힘찬 목소리가 고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수들의 가슴은 적에 대한 증오와 승리의 신심으로 불타 올랐습니다.

《사격!》 사냥'군조 아저씨들은 일제히 총탄을 퍼부었습니다.

진지를 발견한 적기 한 놈이 희천 형님을 향해 덤벼 들었습니다.

형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맞받아 싸왔습니다. 적기는 힘 없이 솟구쳐 오르더니 마을 저편에 가 곤두박혀 떨어졌습니다.

형님은 그것을 볼 경황도 없었습니다. 또 한 놈이 옆으로 덤벼 들었습니다. 형

님은 날쌔게 총신을 빙 돌려 압철을 눌렀지만 탄알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바이!》 뒤로 접어 드는 적기와 싸우고 있던 부사수 아저씨의 몸에는 불'길이 타번지고 있었습니다.

원쑤놈들은 휘발유통을 내던졌던 것입니다. 와락 뛰여 가 아저씨의 군복 저고리를 벗겨 준 희천 형님은 2 분대 사수 김 상보 형님에게로 뛰여 갔습니다.

《상보 동무! 상보 동무! 탄알을 좀.》

상보 형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금까지도 함께 싸우던 형님은 그만 불행하게도 적탄에 맞아 희생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쑤를 갚기 위해 18 세의 어린 몸으로 전선에 달려 나와 이 세상에서 미 제국주의 원쑤놈들을 쓸어 없앨 때까지 총을 놓지 않겠다던 상보 형님이였습니다.

탄약통을 안고 오는 형님의 가슴 속에서는 백 배 천 배의 복수심이 불타 올랐습니다.

적기는 계속 미친듯 달려 들었습니다.

형님의 다리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형님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순간 형님의 귀에는 원쑤놈들의 폭격에 맞아 쓰러진 귀여운 아들의 복수를 부탁하는 이 나라 수 많은 어머니들의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원쑤를… 원쑤를…》하고 숨을 거둔 상보 형님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형님은 후닥닥 정신을 차렸습니다. 피 흐르는 다리를 끌며 한 치 두 치 좌지에 이른 형님은 있는 힘을 다 모아 손잡이를 틀어 잡았습니다.

형님은 압철을 눌렀습니다.

그는 실로 목숨을 바쳐 적기와 싸웠습니다. 다른 사냥'군조 아저씨들도 계속 총탄을 퍼부었습니다. 아침 10 시에 시작된 전투는 저녁 4시 경에야 끝났습니다.

이 날 형님은 적기 3 대를 떨구었습니다.

그 후 형님은 계속 용감히 싸워 적기 9 대를 떨구었습니다. 그리하여 1951년 9월 26일 영광스럽게도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비행기는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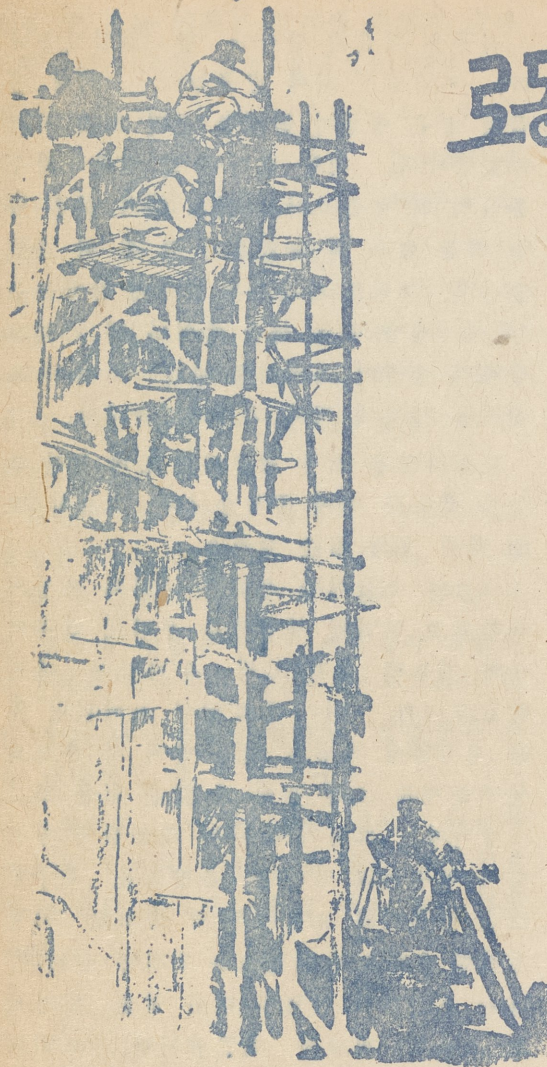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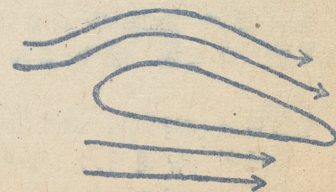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볼 때마다 동무들은 저렇게 무거운 것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가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은 알고 보면 아주 쉬운 것이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게 되는 것은 비행기 날개의 생김생김에 그 비밀이 있는 것이다.

비행기의 프로페라가 돌기 시작하면 뒤로 밀리운 공기는 날개의 아래 우를 그림과 같이 스쳐 지나 가게 된다.

이때 공기는 날개 밑 보다 날개 우로 더 잘, 더 빨리 미끄러져 가는 것이다. 그것은 날개의 웃부분은 활등처럼 곡선으로 되였고 날개의 아래 부분은 거의 직선으로 되였기 때문인 것이다.

이 때 공기의 흐름 속도가 빠른 날개의 웃부분은 공기의 흐름 속도가 빠르지 못한 날개의 아래'부분보다 압력이 아주 작다. 이렇게 되면 비행기 날개는 압력이 적은 웃부분으로 올려 뜨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로동은 행복을 창조한다

황해 제철소 2중 로력 영웅 원 도중
그림 양 재혁

소년단원 동무들!

나는 지금도 공화국 각지의 여러 소년단원 동무들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편지마다에는 환갑이 넘은 지 오랜 내가 어떻게 아직도 일을 하는가고 하지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내가 힘든 일을 할 때면 앞을 막아서면서 쉬라고 하지요. 혹 어떤 사람은 이제는 년로금이나 타고 쉬라고도 하지요.

나는 금년에 예순 여섯이지만 가만이 앉아서 나라의 혜택만 받으며 편히 쉬고 싶은 생각은 꿈에도 해 본 일이 없지요. 왜냐구요? 나는 아직도 일터에서 젊은 이들에게 져 본 일이 없는 건강한 몸입니다. 수십 메터나 되게 높은 용광로 꼭대기에 올라 가서 연공 일을 할 때나 내 손으로 쌓아 올린 용광로가 검은 연기를 뿜고 쇠'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을 볼 때면 나는 자기도 모르게 젊어지는 것만 같지요.

저 쇠'물이 뜨락또르, 자동차가 되여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앞당긴다고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흐뭇해 지지요. 소년단원 동무들! 이처럼 로동이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즐겁고 가장 영예로운 것이지요. 그러기에 나는 내 팔 다리가 움직일 때까지 한 평생을 로동하려고 하지요. 사람이 살아 가는 데 로동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말해 봅시다.

동무들이 쓰고 있는 학습장이나 연필, 교과서로부터 시작하여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 물건들이 그 어느 것 하나 로동과 떼여 놓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모두가 우리의 로동자 농민들의 귀중한 로동의 열매인 것입니다.

갈'대 무성하던 진펄에 비날론 폭포가 쏟아지게 하고 황초평을 황금평으로 만들어 오곡백과 무르익게 한 기쁨과 행복을 무엇이 우리에게 안겨 주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령도하에 조선 인민이 나라와 인민을 위해 한 마음 한뜻으로 일한 로동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처럼 로동은 우리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일하면 일한만큼 그 사람은 나라와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회에서든지 일하는 사람이면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지주 자본가놈들이 권세를 쓰는 미국이나 남조선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땀 흘리며 일하는 로동자, 농민을 제일 천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해방 전 내가 일한 약 40여 년 간은 그러하였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주놈의 천대를 받으며 농사 일도 해 보았고 자본가가 차려 놓은 철공소에서도 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커서는 왜놈 자본가들이 차려 놓은 제철소(지금은 황해 제철소)에서 제관공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때는 나 뿐만 아니라 많은 로동자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 그놈들의 갖은 착취와 멸시를 받으며 일하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루 아침 공장에 출근을 하니까 《미야다끼》라는 일본 감독놈이 용광로의 송풍기 덮개를 하루 동안에 새로 갈아 대라는 것이였습니다.

사흘은 착실히 걸려야 할 일이였습니다. 저녁녘이 되여 감독놈이 오더니 만들어 놓은 송풍기 덮개를 살펴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흘 걸려야 할 일을 하루 동안에 해 놓았으니, 그것도 하기 싫은 일을 되는 대로 해 놓았으니 잘 될 리 없었습니다. 그러자 자본가의 앞잡이 감독놈은 《에이, 짐승 같은 놈들 죽어나 봐.》 하고 갑짜기 송풍기 스위치를 넣어 두 명의 로동자를 철판에 치여 희생케 했습니다.

로동자들은 모두 격분하여 달려 들어 그놈을 죽도록 때려 주었습니다. 그때야 정말 죽지 못해 일을 했지요.

그러나 오늘이야 우리가 나라와 공장의 주인이고 일하면 일할수록 우리의 행복이 늘어 가는데 어찌 일에 신'바람이 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제'날의 쓰라렸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려 내 손으로 원쑤들에게 보란 듯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왜놈들이 망하면서 파괴하고 달아난 용광로를 복구한 것을 비롯하여 오늘까지 내 손으로 직접 건설한 용광로와 해탄로는 7개나 됩니다. 나는 오늘까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조금도 피로를 몰랐습니다. 오히려 더 젊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 나라 내 일을 하니 일은 흥겹고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서 창의 고안도 자꾸 늘어 일은 더 헐하게만 되여 가고 있지요. 내가 용광로를 건설할 때 우리 공장에 친히 오신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아무런 곳에서나 어떤 일이건 잘 하여 나라에 많은 리익을 주는 사람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손목을 굳게 잡아 주시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너무도 감격해서 온 밤을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나의 힘이 스며 든 그 용광로와 평로에서 강철과 선철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때면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에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지금 로들 앞에서는 지난 8월 김 일성 원수님이 우리 공장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심장에 새긴 강철 용사들이 6개 고지 점령을 위해 하루에 1,600톤의 선철과 1,200톤의 강철을 뽑아 내고 있습니다. 그 강철들은 덕천과 희천, 기양에서 자동차가 되고 뜨락또르가 되고 쇠를 깎는 기계가 되여 우리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해 주고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일하면 일할수록 나라가 튼튼해지고 인민들이 잘 살게 되는 세상에서, 아직은 일할 수 있는 내가 왜 나라에서 주는 돈만 받으며 쉬겠습니까! 사람들이 착취와 빈궁에서 시달리는 자본주의 사회와는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일하면 일할수록 더욱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무한한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인 소년단원 동무들! 어려서부터 로동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소년단 창립 15 주년을 맞이하여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보내는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에는 《소년단원들은 로동을 사랑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도 로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소년 시절부터 로동에 관습된 아름다운 품모를 갖추어야 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동을 사랑하는 마음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배운 지식을 실험 실습을 통해 쓸모 있게 익혀 가며 꼬마 7개년 계획 활동으로 사회에 유익한 로동에 참가하는 등으로 로동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그것은 로동입니다. 모두 무럭무럭 자라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 로력 혁신자, 로력 영웅이 되십시요.

왜 그럴가요?

별은 왜 반짝이는가?

별에는 마치 활활 타번지는 불이 있는 것 같이 항상 반짝이고 있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리유는 어디 있을가요?

별들은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들은 모두 우리 지구보다 수천 배나 더 큰 것이며 많은 별들은 태양보다도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러나 별들은 참으로 머나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극히 작은 것으로 보입니다.

별들의 가느다란 광선은 머나먼 거리를 공기를 통과하여 비로서 우리들의 눈에 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들이 반짝이는 것은 별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지구를 둘러 싸고 있는 공기의 변화로 생기는 것입니다.

즉 바람이 불거나 비교적 습기가 더 많은 공기나 또는 메마른 공기가 섞이는 때 등에는 우리 눈에는 별의 명확한 그 빛이 항상 다소 변화되여 마치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남조선 이야기

그들은 속지 않았다

안 전 일

가랑잎이 떨어지는 가을 철 어느 날이였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삼양동 빈민굴에는 주 영국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날도 영국이는 이른 새벽부터 병석에서 앓는 어머니와 두 동생을 위하여 담배통을 어깨에 걸머지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행길'가에 나선 영국이는 담배를 팔기 위해 바쁜 걸음으로 이곳저곳 분주히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낮 12 시가 지나도록 한 갑의 담배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요사이는 가난에 쪼들려 학교에 가지 못하고 담배 장사로 된 소년이 부쩍 늘어 난 데다 담배 값이 갑절이나 올랐으니 말입니다.

영국이가 을지로에 이르렀을 때 네거리에서는 갑자기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퍽 귀에 익은 말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영국이가 다니던 용덕 국민 학교의 동급생들이였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 가는 참이였습니다.

영국이는 그들과 만나지 않으려 골목길로 빠여저 들어 갔습니다.

어느 한 쓰레기통 뒤에서 걸음을 멈춘 영국이는 멀리 지껄이며 지나 가는 학교 동무들을 부러운 눈으로 물끄러미 바라 보다 그만 한숨을 지으며 주저 앉고 말았습니다.

영국이는 그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할 가지가지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지난 초여름 어느 날이였습니다.

하루의 품팔이에서 지친 영국의 아버지는 해질 무렵에야 지게를 지고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지가 성북동 앞 도로를 건널 때 뒤에서 한 대의 자동차가 달려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인차 길'섶에 나섰으나 사람 잡이를 일 삼는 미군 양키놈은 영국이 아버지를 사정 없이 깔아 눕혔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잃은 이 후부터 가난하던 영국이네 집엔 차거운 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었습니다.

영국이네 집 식구들은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마저 부황'증에 걸려 병석에 눕게 되니 영국이는 참으로 딱하였고 괴로왔습니다.

영국이는 학교에서 내라는 여러가지 잡부금을 물 길이 없었습니다.

공부를 썩 잘하고 똑똑한 영국이는 담임 선생인 최 선생의 도움을 받아 한 학기를 간신히 더 마쳤습니다. 그러던 최 선생마저 교수시간에 군사 정권을 찬양하지 않는 다는 리유로 경찰놈들에게 잡혀 갔습니다.

이리하여 영국이는 더는 공부를 계속할 수 없게 되였습니다.

돈이 없는 탓으로 결국 학교에서 쫓겨 나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쉰 두부 비지 한 덩어리를 동생과 나누어 먹고서는 아직 요기를 못한 영국이는 배가 몹시 고파 났습니다.

그러나 영국에게는 돈 한 푼 없었습니다. 물이라도 마시려고 공동 수도에 찾아 갔습니다. 물도 제대로 보내 주지 않는 수도'가는 반반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도 영국이는 혹시나 하고 수도 꼭지에 입을 대고 있는 힘을 다 모아 빨고 또 빨았습니다.

이 때 사위에서 호각 소리, 군화 소리, 자동차 소리, 개 짖는 소리, 사람의 아우성 소리가 왁짝 일어 났습니다. 거리는 온통 소란해졌습니다.

검은 안경에 미국제 총을 멘 한 놈의 경찰이 수도'가로 뛰여 오더니 영국이의 목덜미를 꽉 틀어 쥐는 것이였습니다.

《이 자식아, 저기 가자》.

《왜 그러세요…어디 간단 말이얘요》.

《잔말 말구 가자…》.

경찰놈의 세찬 손아귀에 잡힌 영국이는 꼼짝 달싹 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이가 《부랑아 단속법》(군사 깡패들은 집 없이 길'거리에서 떠도는 아이들을 이렇게 망탕 잡아 가둔다.)에 걸려 경찰놈에게 끌리여 간 곳은 미국놈이 경영하는 《아동 보호소》라는 곳이였습니다.

《아동 보호소》의 울타리는 가시줄로 둘러 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국이는 그리운 어머니 품에서 떨어져 승냥이의 굴에 갇히였습니다.

자애로운 어머니 품을 그리면서 뭇별이 총총한 밤 하늘을 바라 보는 영국이의 량 볼에는 두 줄기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였습니다.

키다리 미국놈 한 놈이 나타났습니다.

영국이는 《그가 누구냐》고 옆 동무에게 물으니 《아동 보호소》 《소장》 이라는 것이였습니다.

그 놈은 150 여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앞에 놓고 일장 연설을 하였습니다.

《예, 어린이 제군들, 우리 미국 사람은 불상한 한국의 소년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어제 새로 들어 온 소년들도 오늘부터는 하느님의 아들이 되여 행복한 보금자리에서 생활하게 되였습니다.

우리 미국 사람의 말을 잘 듣는 똑똑한 학생은 미국에로 류학 보냅니다. 알겠습니까》.

미국에 보낸다는 말에 영국이는 가슴이 덜컥 했습니다. 영국이는 집으로 돌려 보내 달라고 몇 번 청원했으나 그놈은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일 주일이 지났습니다. 소년들은 그동안 보리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된 로동만 했습니다. 하루는 영국이가 《소장실》 문어구에서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미국 승냥이의 간악한 계획을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제가 죤슨입니다. 예? 소년들을 모두 내일 아침 미국에로 가는 배에 싣도록 하라구요. 예예. 곧 준비하겠습니다.》

죤슨 《소장》 놈은 전화통을 놓자마자 무릎을 탁 치면서 《옳지. 이제야 딸라 뭉치가 내 호주머니에 그득 차겠구나…》 하고 말하면서 술을 한 잔 들이켰습니다.

영국이는 이 소식을 동무들에게 알렸습니다.

경수도, 전남이도, 신일이도 영국이와 같이 그 날 밤 가시줄을 뚫고 도망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둠이 깃들자 그들은 겹겹히 둘러친 가시줄을 뚫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신일이가 가시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깜짝 놀랜 보초놈의 호각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들은 다시 놈들의 손아귀에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밤'중에 죤슨은 소년들을 불러 놓고 심문했습니다.

《우리 미국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는 너희들에게 본때를 보여 줄테다.…》

승냥이 미국놈은 주먹으로 소년들을 사정 없이 때리였습니다.

《내게 무슨 죄가 있다구 때려요…나를 집에 돌려 보내 줘요…》.

영국이는 애원했습니다.

《이놈이 아직도 반항하는구나…》승냥이놈은 이번에는 마련해 두었던 곡괭이 자루로 영국이의 등을 휘갈겼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영국이는 《악!》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죤슨이 사라지자 소년들은 쓰러진 영국이 두리에 모였습니다. 《영국아, 정신 차려…》.

영국이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래일 미국으로 팔리워 간다. 도망쳐라.》

격분한 소년들은 《소장실》로 달려 갔습니다.

소년들은 자기들을 미국 농장주에게 팔아 먹으려는 죤슨놈을 해치울 작정이였습니다.

소년들의 기세에 겁을 집어 먹은 죤슨은 어느새 꽁무니를 뺐는지 간 곳이 없었습니다.

과학 환상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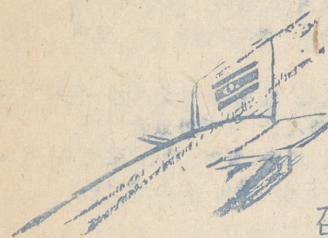
신기한 과학 도시

김 동섭

그림 오 영복

《96 분의 8에다가 가하기 0.91이라. 아차 또 틀렸구나》.

한참 문제 풀이에 골몰하고 있던 영석이는 이번에도 답을 맞추지 못했던지 분한 듯이 머리를 감싸 쥐고 소리쳤다

《아직도 숫태 남아 있구나》

옆에 앉아 있던 경철이는 문제집을 벌떡벌떡 제끼면서 중얼거렸다

이 때 창 밖에서 아이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려 왔다 두 아이는 얼른 창문턱에 다가 서서 밖을 내다 보았다

창 밖에는 눈부신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포근한 솜뭉치마냥 온 누리를 뒤덮은 눈은 아침해'살에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강변에는 번쩍거리는 스케트를 손에 든 소년들이 수 많이 모여 있었고 벌써 몇 아이들은 넓은 강 한복판까지 쨍쨍 달려 나가고 있었다.

《야! 그저》 경철이는 더는 못 참겠다는 듯이 홀딱 뛰며 소리쳤다.

《안돼, 방학이 이젠 열흘 밖에 안 남았는데 숙제는 어떻게 허니!》 영석이는 경철이의 팔을 잡아 당겨 앉히며 말하였다. 그리고는 또다시 문제 풀이에 골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경철이는 오금이 쏘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 마음은 벌써 강변에 나가 있었고 아무리 책을 들여다 보아도 눈 앞에는 얼음판이 어른거릴 뿐이였다.

잠시 후에 경철이는 무릎을 탁 치면서 《얘, 그 계산하는 기계가 있다지 않아, 그런 기계만 있으면 이까짓 숙제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뭐!》하고 목청을 높여 말하였다

《응 요전에 우리 아저씨가 말씀해 주시던 그 계산 기계 말이지?》

《그래! 그런데 그 기계가 정말 이런 숙제를 해 낼 수 있을가?》

《흥, 이런 문제는 일 초 동안에 수천 개씩 척척 풀어 제낀대…》

《아니 뭐 수천 개씩? 그럼 이런 숙제는 단숨에 몽땅 할 수 있겠구나!》

경철이는 펄쩍 뛰며 좋아하는 것이였다

이 때 밖에서 정옥이가 숨을 헐떡이면서 뛰여 들어 오는 것이였다.

《오빠! 아저씨한테서 편지가 왔어.》정옥이는 영석이 앞에 푸른 색 곽봉투를 내밀었다

영석이는 펼쳐 들고 읽기 시작했고 경철이는 어깨 넘어로 들여다 보았다.

거기에는 오늘 열 한시까지 연구소가 있는 과학 도시로 구경하려 오라는 내용이 씌여 있었다. 영석이가 한번 죽 내려 읽자

《야! 아저씬 아주 재미나는 걸 구경시켜 줄거야.》하고 정옥이는 손'벽을 치며 기뻐하였다.

《경철아, 너도 같이 가 보자꾸나》. 영석이가 말하자

《나랑 같이 가두 되니?》 하며 경철이도 기뻐서 야단이였다.

《그럼 뭐 되지 않구. 자 어서》.

이렇게 세 아이들은 떠날 차비를 서둘렀다.

잠시 후에 그들은 전기차에 몸을 싣고 과학 도시로 향하였다. 겨울날 치고는 보기 드문 맑은 하늘이며 눈에 덮인 넓은 들과 높고 낮은 산등성이들이 마치도 강물이 흐르듯이 뒤로 흘러 가는 것이였다. 어찌나 빨리 달리는지 바람도 채 따라 오지 못하는 것 같았다.

세 아이들이 웅장한 대자연의 모습에 정신을 팔고 있는 사이에 어느덧 전기 차는 과학 도시에 다달았다.

《여기는 과학 도시입니다. 여기는 과학 도시입니다. 1 분간 정차하겠습니다.》 고성기에서 이런 말소리가 울려 나왔다.

세 아이들은 얼른 내려 섰다. 그런데 거기엔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익크 이게 웬일이야, 움직인다!》 그 순간 경철이가 놀라서 소리쳤다.

《에그머니나 날 붙잡아 줘!》정옥이도 넘어질번 하다가 간신히 몸을 가누었다.

《아하 이게 바로 〈움직이는 길〉이로구나!》 영석이가 알았다는 듯이 소리쳤다.

《아니, 움직이는 길이라니.》 경철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요전에 아저씨가 과학 도시엔 움직이는 길이 여러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서 있기만 하면 저절로 밖으로 나가게 되는가 보지.》 영석이는 신나서 대답하였다.

《그거 참 그럴듯 한데!》

《난 지진이 일어 나는 줄 알았어》.

세 아이들이 저마다 신기해 하는 동안에 《움직이는 길》은 그들을 정거장 밖으로 실어 내 주었다.

역전 광장에 나선 아이들은 그만 놀라서 잠시 동안 입을 벌리고 멍하니 서 있기만 하였다.

이게 도대체 웬 일일가? 지금까지 눈

앞에 펼쳐 있던 눈 세상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초여름처럼 록음이 우거진 황홀한 도시의 풍경이 눈 앞에 나타난 것이다.

푸른 숲에 덮인 산뜻한 거리, 청기와 지붕이 하늘을 안고 펼쳐진 궁궐 같은 집들, 천문대처럼 둥굴거나 야릇하게 모가 난 높은 집들, 온몸에 흠뻑 젖어드는 그윽한 꽃향기, 이 모든 것은 너무나 놀랍고도 남음이 있었다.

《여긴 정말 딴 세상인데…》

《집들도 굉장하구나…》

영석이와 경철이는 그저 멍하게 서서 감탄만 하고 있었다.

《아유 더워라, 괜히 이렇게 옷을 잔뜩 끼여 입구 왔지》 정옥이가 두툼한 나트론 외투를 벗어 제끼며 땀을 훔치며 야단 법석을 하는 바람에야 그들은 제 정신이 들었다.

《아저씨가 어디에 마중 나와 계실가?》

영석이는 자동차들이 붕붕거리고 있는 저쪽을 살펴 보며 말하였다.

광장 저 편에 나란히 서 있는 자동차들은 우리가 흔히 보던 승용차들과는 퍽 달랐다. 겉 모양은 올챙이처럼 생겼었는데 차벽이 온통 유리처럼 투명해서 안에 들어 있는 울긋불긋한 부속품들이 모두 들여다 보였고, 보석 뭉테기처럼 영롱한 것이 아주 고와 보이는 것이였다.

아이들은 천천히 그 쪽으로 걸어 갔다.

얼마쯤 가까이 다가 가자 자동차들이 붕붕거리는 소음에 뒤섞여 아이들을 찾는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려 왔다.

《영석아! 정옥아!》

《옳지 저기로구나!》 영석이는 얼른 목소리가 울려 나온 그 자동차께로 달려갔다.

그러나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니 아저씨가 대체 어데서 우릴 찾고 있니.》 영석이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서 있었다.

《아니, 분명히 이 자동차 속에서 들려왔는데?》 정옥이는 갸웃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 순간.

《잘들 왔다. 어서 타거라, 이 차에 말이다.》 하는 아저씨의 낯 익은 목소리와 함께 문이 벌떡 열렸다.

《아저씬 대체 지금 어데 계셔요?》정옥이가 무서워서인지 한 걸음 뒤로 물러 서면서 물었다.

《여기에 있다. 여기.》 영석이가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한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

《아하! 테레비존에 마중 나와 계시는구나.》 경철이도 신이 나서 웨쳤다.

과연 차 안에 놓인 테레비존 영사막에 아저씨의 웃는 얼굴이 나타나 있었다.

《응 경철이두 왔구나, 잘 했다.》아저씨의 말이였다.

《아저씬 어떻게 내가 온 걸 아시나요?》

경철이는 차 안에 들어 서며 물었다.

《나도 여기서 테레비존으로 너희들을 다 보고 있다. 자 문을 닫겠다.》 이 말과 함께 문이 스르르 닫기더니 조용한 소리를 내면서 자동차는 가볍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익크 이 자동차가 저절로 어디를 가나?》

《어서 멈춰야겠어. 그 발판을 눌러!》

두 아이는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러나 테레비존 속의 아저씨는 태연하게 웃으시면서

《념려들 말아라, 내가 지금 여기서 운전하고 있으니까.》하는 것이였다.

《아저씨가 거기서요?》

아이들은 일제히 물었다.

《그렇다. 너희들이 지금 탄 자동차가 바로 전기 자동차이다.

지금 길 밑의 땅 속에는 고주파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깔려 있다. 거기서 생겨 나는 고주파 전류 마당 에네르기를 자동차에 달린 수신기가 받아서 바퀴를 돌리는 힘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란다.》이렇게 아저씨는 설명하여 주셨다.

《아하 그래서 자동차의 모양이 낯설게 생겼댔구나.》 영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자 중얼거렸다.

아이들은 한참 화려한 거리 풍경에 한눈을 팔고 있었다. 거리에는 사람이 드물었고 차도 그리 많이 다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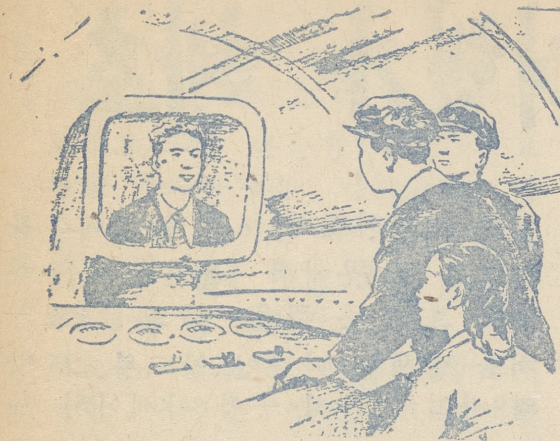
그런데 갑자기 가까운 곳에서 뿡뿡—하는 자동차 소리가 들려 왔다.

《익크 저기 오는 자동차하구 부디치겠다!》 경철이가 벌떡 일어서며 웨쳤다.

《아저씨! 아저씨, 아니 아저씨가 어디로 사라졌어요, 아저씨!》 정옥이는 테레비존 영사막을 향하여 힘껏 소리쳤다.

《어서 멈춰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네거리에서 틀림 없이…》

본시 침착한 영석이도 이 때만은 덤비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만 잡아 흔들면 뭘하니? 자동차를 멈추게 해야지!》

경철이도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교통 정리원 아저씬 어데 있어요. 그 차라두 멈춰 주지 않구서!》

영석이는 힘껏 웨쳤다.

《에그머니나!》

《사람 살려 주!》

경철이와 정옥이는 눈을 질끔 감으면서 소리쳤다.

그러나 《윙—》 하는 바람 소리와 함께 저편 자동차는 불과 몇 센치메터를 사이 두고 스쳐 가는 것이였다.

《어유 정말 혼났네.》 경철이가 눈을 살며시 뜨고 숨을 크게 내 쉬였다.

《정말 큰일 날번 했어.》 영석이도 코잔'등에 송송 솟아 난 땀을 씻었다.

《아저씨 어쩌면 그렇게 우리를 놀라게 만드세요.》 정옥이의 말에 영사막을 바라보니 아저씨가 나와 있었다.

《교통 정리원 아저씨두 없구 해서 우린 진땀을 흘렸어요.》 영석이도 보태였다.

《걱정들 말라구 하지 않았니. 〈교통 정리원 아저씨〉두 지금 내 옆에 있다. 여기서 부디치지 않도록 다 조정하고 있다.》

아저씨는 태연하게 대답하는 것이였다.

《아니 거기가 대체 어데기에 교통 정리원 아저씨도 그 곳에 함께 계시나요?》

경철이는 영문을 몰라 했다.

《음, 이제 알게 된다. 여기는 과학 도시 중앙 교통 조정실이다. 여기 있는 기계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교통 정리원〉 노릇을 대신하고 있단다》.

《네!? 기계가요?》

아이들은 암만해두 알 수 없는 일이라는 듯이 고개를 갸웃둥 거리면서 얼굴만 마주 보고 서 있었다.

《이젠 됐다. 나하구 같이 가자.》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문득 멎더니 문이 벌떡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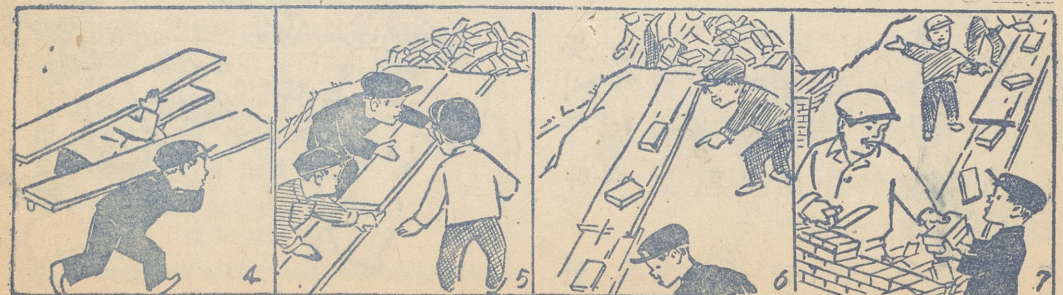
《야 아저씨!》

아이들은 반가와서 얼른 뛰여 나가 아저씨에게 매달렸다. 진짜 아저씨는 이제야 나타난 것이였다.

(다음 호에 계속)

이것을 아십니까?

화분에는 왜 끓였던 물을 주면 안 될가요?

식물의 뿌리는 공기를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끓이지 않은 물을 주면 공기가 물 속에 녹아 있으므로 식물의 뿌리는 적으나마 공기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끓인 물 속에는 거의 공기가 포함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식물들이 자라는 데 해로운 것이다.

신라의 대려행가 혜초

엄 창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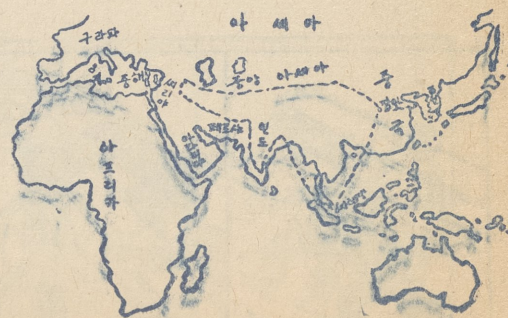
우리의 선조들 중에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수 많은 명장과 과학자, 문학가, 예술가, 대 려행가들이 있다.

신라 시기의 우리 나라 대 려행가 혜초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다.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깊은 뜻을 품었던 혜초는 신라 선덕왕 시기(703~737)에 불교를 깊이 연구하기 위하여 어린 몸으로 당 나라에 갔다.

그 때 그의 나이는 스므살도 안 되는 소년이였다. 당 나라에 간 혜초는 그 곳에서 불교를 연구하다가 보다 큰 뜻을 품고 불교가 처음 발생한 나라인 인도와 그 밖의 서역(오늘의 중앙 아세아와 다른 중근동 지방)지방을 려행할 목적으로 중국을 떠나 대 려행을 시작하였다.

혜초는 당 나라 서울인 장안을 떠나 광주에 가서 배를 타고 오늘의 인도지나 동쪽 바다를 지나 스마트라를 거쳐 인도를 일주하고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을 지나 페르샤와 당시 대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이였던 씨리야에까지 갔다가 중앙 아세아의 마베란나흐르와 토하라 지방을 지나서 파미르 고원을 넘어 당 나라 서울 장안에까지 대 려행을 끝 마치고 돌아 왔다.

실로 이것은 세계에 그 류례가 드문 대 려행인 것이다.

지금까지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대 려행가 코롬브스와 비해 보아도 그 려행의 길이로 보아서나 려행 기간으로 보아도 더 긴 것이다.

코롬브스는 단순히 배를 타고 항행을 계속하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 했지만 혜초는 학문을 탐구할 높은 뜻을 품고 그러한 대 려행을 한 것이다.

혜초는 인도나 기타 지방에서 극진한 대우를 받으면서 려행한 것이 아니라 홀로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대 려행을 한 것이다.

혜초가 려행하던 시기란 오늘처럼 훌륭한 기선이나 기차, 자동차, 비행기 같은 것은 아직 세상에 생겨 나기도 전이다. 고작 있었대야 말이나 당나귀가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의 려행이란 주로 걷는 것이였다. 걷는 것 역시 오늘처럼 판판한 도로가 아니라 험한 산'길과 진펄들이였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더운 지방의 하나인 인도의 넓은 지역과 가도가도 끝 없는 모래'불로 덮혀 있는 중앙 아세아와 기타 지방의 사막 지대를 갈'증과 더위와 싸우면서 려행을 하였다. 그러니 그 고롱인들 얼마나 심했겠는가. 사시장철 눈을 이고 높이 솟은 파미르 고원(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원)을 넘자니 그 추위인들 얼마나 심했겠는가! 그것도 한두달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되는 긴긴 세월을 두고 려행을 하였으니 그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혜초는 이러한 고롱 속에서 오랜 세월을 두고 이국 땅을 려행하였지만 잠시도 조국을 잊은 때가 없었다.

그는 인도를 다 돌고 나서 1 년내내 흰 구름이 덮고 있는 히말라야 산맥을 지나 작은 나라에 이르렀을 때 조국에 대한 생각이 끓어 넘쳐 다음과 같은 시를 남기였다.

…여기선 기러기 조차 보지 못하는 데

그 누가 날 위해 조국 소식 전해 주랴.…

이 시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동)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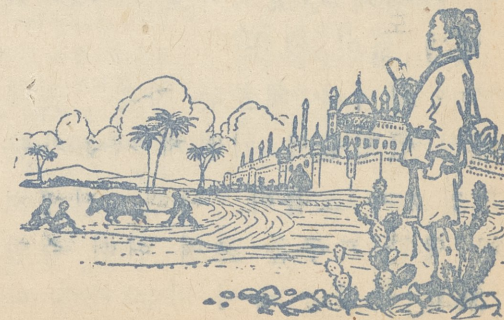
어서 가거라

우리 분단 동무들 모은 페품을
수매 자동차가 씽씽 싣고 달려요
용광로로 가요, 방직 공장 가요

파철은 눈부신 쇠'물 폭포 되여서
120만 톤 강철 고지에 높이 쌓아
뜨락또르 자동차 막 쏟아져 나오죠

고포는 천 짜는 방직 공장에서요
필필이 쭉쭉 2억 5천만 메터로 쌓여
무지개 빛 고운 옷이 쏟아져 나오죠

잘 가거라 페품아
여섯 개 고지 우에 어서 쌓여라
우리 마음 꽃처럼 피여 나거라

평남도 숙천군 송덕 중학교
제 13 분단 리 상신

조국을 사랑하고 그리워 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대 려행가가 우리들의 선조들 중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들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혜초는 단순한 려행가가 아니라 훌륭한 학자이기도 하였다. 그는 서역 지방을 려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왕오천축국선》이라는 자기의 려행기에 적어 후세에 남기여 학자로서의 그의 이름을 더욱 빛내였다. 혜초가 쓴 이 려행기에는 인도와 그 밖의 여러 서역 지방 나라들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지방 사람들의 종교와 생활 풍습에 대하여 자세히 썼다. 혜초는 자기가 려행한 지방의 말이 어떻게 같고 다르던가를 거의 빠짐 없이 썼다.

뿐만 아니라 혜초는 가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살피였으며 그들이 어떤 집에서 어떤 생활 도구를 쓰며 어떤 습관이 있고 무엇을 좋아 하는 가를 다 썼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중인도를 려행하던 때의 기록을 보면 왕과 사원(절간)들과 그밖에 있는 놈들은 큰 3층 집에서 호화롭게 사는데 그들의 곁과 이웃에 있는 보통 백성들은 오막살이에서 살고 있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왕은 100 마리의 말을 가지고 있고 관리와 부자들은 30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백성들은 한 마리의 말도 가지고 있지 못 하더라고 썼다.

이러한 내용으로 씌여진 그의 려행기인 《왕오천축국선》은 오늘 그 때 시기(8세기) 인도와 서역 지방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 되고 있다.

이것을 아십니까?

누워서 책을 보면 왜 나쁜가?

누워서 책을 보면 우리들의 몸에 해로운 것이다.

그것은 누워서 책을 보면 책과 눈과의 거리가 가까와지기 때문에 근시안이 되기 쉽다. 그리고 누으면 온 몸의 피곤이 곧 풀리고 대뇌의 움직임이 적어지는데 이런 때에 책을 본다는 것은 신경 활동을 무리하게 하므로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거나 깊은 잠을 잘 수 없는 등 신경 쇠약에 걸리기 쉽다.

피부를 왜 보호해야 할가요?

중앙 피부 성 병원 원장 교수 리 성 숙

피부를 잘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 아주 중요 합니다.

피부는 여러 내장들을 둘러 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부터 나쁜 병균들이 몸 안으로 들어 오지 못하게 막아 줍니다. 그리고 피부면에는 많은 신경이 분포되여 있어 밖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자극을 뇌수에 전달하면서 몸에 해로운 자극이 올 때는 이를 곧 피할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는 사람들이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방 안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처럼 몸의 열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즉 더울 때에는 혈관을 넓히고 땀구멍을 열어서 몸을 씨원하게 하며 반대로 추울 때에는 혈관을 좁히면서 땀구멍을 닫아 몸을 덥게 하여 줍니다. 이 밖에도 피부는 땀과 지방(기름)을 통해 몸 안에서 생긴 좋지 못한 물질들을 밖으로 내 보내여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 줍니다. 피부가 하는 일은 이것 뿐이 아닙니다.

피부는 내장 또는 신경 계통들과도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사람들의 활동과 건강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부를 잘 보호하고 피부가 자기 기능을 잘 놀 수 있게 하는 것은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피부를 잘 보호하며 그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항상 피부를 깨끗이 하고 그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몸에서 나오는 땀이나 기름 그리고 때가 묻은 것을 씻지 않고 그대로 두면 여기서 병균들이 자라게 되여 피부 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피부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에 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부를 어떻게 깨끗이 하고 단련하면 좋을가요?

피부를 깨끗이 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항상 목욕을 제 때에 하는 것입니다. 얼굴, 목, 손 등은 쉽게 어지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한두번씩 씻어야 합니다. 특히 손은 어지러워질 때마다 자주 씻어야 합니다. 발은 잠 자기 전에 꼭 씻고 자는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붙여야 합니다.

목욕은 일주일에 두번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땀이 많이 나고 몸이 쉬 어지러워질 때는 매일 씻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몸을 깨끗이 씻는다고 지나치게 비누를 쓰면서 굳은 수건으로 박박 비벼 피부에 상처를 내여서는 안됩니다.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그리로 나쁜 병균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겨울철에 손이 트고 피부가 거칠어질 때에는 그리세린을 10 배 정도의 물에 타서 발라도 좋고 돼지기름, 크림 등을 발라 피부를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피부에서 기름'기가 많이 나오는 사람은 더운 물과 비누로 하루에 두서너 번씩 얼굴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에 여드러미, 뾰드라지 등이 생기면서 얼굴이 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의 기능을 높여 주기 위하여서는 피부를 깨끗이 하는 것과 함께 잘 단련 하여야 합니다.

피부를 단련하는 데는 마찰 일광욕, 공기욕, 해수욕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 철에 피부를 잘 단련하는 것은 몸을 건강히 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여름 철에 피부를 잘 단련한 사람은 겨울에도 감기에 잘 걸리지 않으며 결핵 기타 여러 가지 병들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또 피부를 단련하여 몸을 건강하게 하자면 피부를 자주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 등으로 마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피를 잘 돌게 하여 신경의 기능을 강하게 하면서 우리 몸 건강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마찰은 몸이 훈훈해질 때까지 10~20분 정도로 피부를 잘 마찰하여야 합니다

또 일광욕(해'볕을 쐬는 것) 도 피부를 단련 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해'볕을 적당하게 쐬면 피부의 기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피부에 묻었던 병균들도 죽고 피부를 통해 비다민《디》라고 하는 영양 물질이 생기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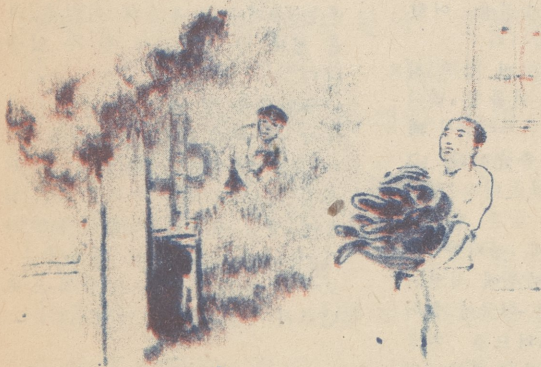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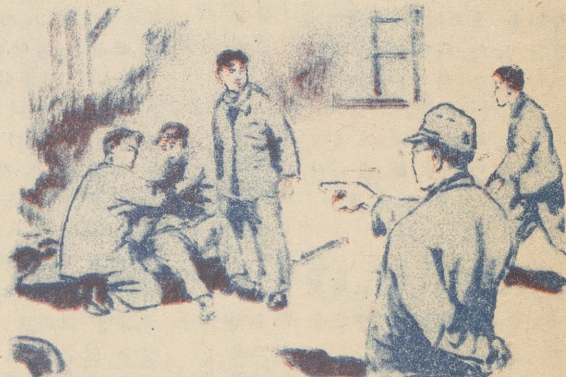
이 밖에도 옷을 벗고 공기를 쐬우는 공기욕도 좋은데 이것은 겨울 철에 방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공기욕을 할 때에는 지나치게 해서 온 몸이 퍼래지고 소름 털이 돋게 해서는 안됩니다. 공기욕을 적당히 하면 추위를 타지 않으며 신경 계통의 작용을 좋게 하여 줍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모두다 자기의 몸을 일상적으로 단련하며 씩씩하게 자랍시다.

오늘의 행복을 생각할 때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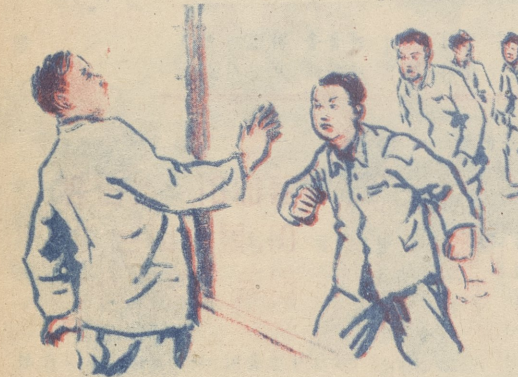
—평양 고무 공장 로동자 신 기수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

① 보세요. 이것은 지난 7월 방송 야회에 참가하여 수천명의 관중들 앞에서 신 기수 아저씨네 온 식구가 출연한 가족써클 공연의 한 장면입니다. 아저씨네 온 가족은 지금 자기들에게 오늘의 행복을 가져다 준 당과 수령님에게 끓어 넘치는 감사를 드리며 목청껏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의 노래를 부르는 아저씨의 눈 앞에는 지주 자본가 놈들에게 억눌려 살던 지난 날이 되살아 오르는 것이였습니다.

② 일찌기 아버지를 여읜 아저씨는 어렸을 쩍부터 지주집 아이 보개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누더기 옷을 걸치고 온 종일 주인 집 아이를 업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끼식할 때가 되면 언제나 오들오들 떨면서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어머니와 같이 찬밥덩이를 한술씩 얻어 먹군 했습니다.

③ 그 후 열네살 되는 해에 평양 정찬 고무 공장 견습공으로 들어 갔습니다. 하루에 12시간 때로는 삼대거리분인 36시간을 뜬 눈으로 서서 일 하였으나 제 배 속만 채우려는 공장주인 자본가놈은 갓 들어온 견습공이라고 하루에 어른들의 절반 인금도 못 되는 30전 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④ 아저씨는 먹지도 못하는데다 고된 일로 해서 정신 없이 비틀 거리는 때가 많았습니다. 이러던 어느날 고무를 이기다가 그만 왼손이 기계에 끼워 손'가락 둘이 짤리웠습니다.

그러나 자본가 리 병두 최 구봉이란놈은 피투성이가 된 아저씨를 보고 기계를 못쓰게 만들었다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⑤ 부상을 당해 일을 나가지 못하는 아저씨에게 돈 한푼 생길 곳이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60전이나 되는 치료값을 치를 수가 없어서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에는 구더기가 쓸었습니다. 사람의 목숨 보다 돈이 더 귀한 세상을 직접 겪은 아저씨의 마음은 막 쑤시고 아팠습니다.

⑥ 근 반 년이 걸려 겨우 병에 나은 아저씨는 갈 곳이 없어 또 다시 그 공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앓은 동안에 쌓인 빚과 물지 못한 집세는 몇달 번 돈을 몽땅 합해도 모자랐으나 거기에다 리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서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집 주인은 쩍하면 당장 집을 내고 나가라고 야단이였습니다.

⑦ 썩은 좁쌀과 대두박 마저 빡빡 굶어 마지막 끼 죽물을 우려 먹고 나선 아저씨는 다문 몇푼이라도 돈을 타면 먼저 좁쌀되박이라도 사고 집세도 한달분치는 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본가 인 공장 주인 놈은 새발의 피만큼 주던 임금마저 20%나 낮춘데다 자기 빚값을 물어야한다고 단 한푼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기 보다 싸우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지!》 참다 못해 아저씨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자본가 놈에게 대들었습니다.

⑧ 아저씨뿐만이 아니였습니다. 임금이 20%나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로동자들은 모두 일'손을 멈추고 서로 모여 섰습니다. 《흥 먹지 말고 일만 하라는게지》 공장안은 버리둥지를 쑤셔 놓은 것처럼 웅성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공장의 1700명의 로동자들은 모임을 열고 파업 투쟁에 일떠섰습니다.

⑨ 아저씨도 파업 투쟁의 선두에 나섰습니다. 경관 놈들은 파업 참가자들을 붙들려고 눈이 벌개서 싸 다녔습니다.

공장주놈은 새로운 로동자들을 모집하여 더 헐 값으로 부려먹으려고 날뛰였습니다. 이때 아저씨는 파업 참가 자들과 함께 공장주놈의 새 로동자 모집을 방해하는 선전 사업도 진행 하였습니다.

⑩ 그후 아저씨는 불행이도 일본 경관 놈들에게 체포 되였습니다. 아저씨는 갖은 고문을 다겪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다 해방을 맞았습니다. 오늘 아저씨는 공장의 주인으로 나라의 주인으로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자기의 재능과 지혜를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곤충들은 어데로 갔을?

소년단원 동무들!

추운 겨울이 왔어요.

온 여름 산과 들을 푸른 옷으로 단장해 주었던 나무 잎들은 누렇게 되여 떨어졌고 울긋불긋 피였던 꽃들도 다 졌습니다.

숲속에서 화창하게 노래 부르던 매미들과 벳짱이들, 부지런히 일 잘 하는 꿀벌들과 개미들은 지금 어디로 갔을가요?

하얀 눈속에 파묻혀 죽지나 않았을가요? 아니면 어디에 숨어서 이 겨울을 지낼가요?

이제 우리 함께 이 수수께기를 풀어 봅시다. 그리고 동무들이 직접 관찰해 보십시요.

집 없는 고슴도치

고슴도치는 정해 둔 자기 집이 없다. 그는 나무 그루 밑에 있는 우묵한 구멍만 발견하면 거기에서 겨울 날 준비를 한다. 날씨가 추워지면 고슴도치는 겨울 준비를하기 위하여 떨어진 나무들을 찾아 간다. 잘 마른 잎들을 구멍 속에 끌어 들인 다음 몸을 움추리고 옆으로 데굴데굴 몇 번 굴기 시작한다. 나무 잎들이 그의 가시에 더덕더덕 달라 붙는다. 그러면 그는 그 채로 구멍 속에 들어가 몸을 동그랗게 움추려 가지고 겨울 동안 아무 것도 먹지 않고 잠을 자는 것이다.

물매미, 소금쟁이, 물거미는 어디로 갔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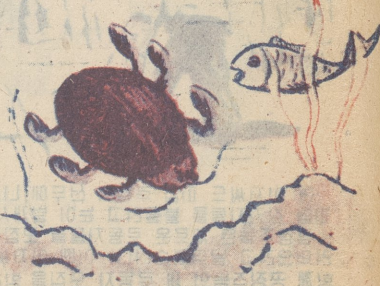
마가을이 되여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소금쟁이는 강기슭에 기여 올라 온다. 겨울을 나기 위해 강 가슭의 이끼속이나 돌밑 혹은 여러 가지 음페물 밑에 기여 들어 간다. 소금쟁이는 여기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다.

물매미는 물 밑의 진흙 속으로 뚫고 들어가 겨울을 난다.

물거미는 우렁이나 빈 조개껍질 속에 들어 가서 구멍을 거미줄로 꽉 막고 그 속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다.

얼음에서 사는 벌레들

늪이 얼기 시작한다. 물 속에서 헤염쳐 다니던 물'고래, 새우 새끼 등 기타 여러 가지 작은 벌레들은 얼음 속에 얼어 붙는다. 그것들은 추워서 감각은 잃었지만 죽지는 않고 있다.

이처럼 물속의 작은 벌레들은 얼음 속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다.

달팽이의 겨울 나기

달팽이는 봄과 초여름에 땅에 작은 구멍을 파고 거기에 40～80 개의 알을 낳는다. 가을이 되면 습기 없는 땅에 나무잎들이 많이 떨어진 밑으로 기여 들어 가서 애교처럼 진득진득한 진을 몸 밖으로 내보내여 자기 몸 껍질에 생긴 구멍을 막는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다.

나비들의 겨울 나기

나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흰 나비가 낳은 알에서 생겨난 유충은 나무 잎들을 갉아 먹다가 가을이 되면 나무 잎을 둥글게 말아 가지고 그 속에서 고치가 되여 겨울을 난다.

또 벼를 해치는 이 화병충 나비가 낳은 알에서 생겨난 유충은 벼를 벤 그루 속에서 겨울을 지낸다.

추경을 하면 벼 그루 속에서 겨울을 지내던 유충은 땅에 파묻히여 죽어 버리게 된다. 그리고 땅속에 들어 갔던 유충은 흙이 뒤집혀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얼어 죽는다. 그러므로 가을철에 논을 갈아 두는 것은 농사에 유익하다.

뱀과 개구리는 어디로 갔을가요.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기 시작하면 뱀과 개구리는 큰 나무 뿌리 밑이나 큰 바위 밑 그리고 보통 땅 속에 들어가 아무 것도 먹지 않고 잠만 잔다.

벼 메뚜기의 겨울 나기

벼 메뚜기는 가을이 되면 알을 논 또는 논두렁에 15～30 ㎝ 정도의 깊이에 낳는다. 그리고 알을 낳은 어미 메뚜기는 죽는 것이다.

가을에 추경을 하면 벼에 해를 끼치는 벼 메뚜기의 알들은 밖에 나와 얼어 죽는 것이다.

잠만 자는 곰

곰은 여름부터 가울까지 도토리와 기타 여러 가지 산 열매를 따 먹고 자기 몸을 살찌운다. 이리하여 가을이 되면 몸은 기름이 져 뚱뚱해 진다.

겨울이 오면 굴속이나 큰 나무가 썩어 구멍 난 곳에 들어가 아무 것도 먹지 않고 쿨쿨 잠만 잔다.

그러나 여름철에 잘 먹지 못하여 자기 몸에 살이 찌지 못했을 때면 겨울철에도 굴에 들어 가지 않고 나와 돌아 다니는 수가 있다.

오소리도 곰처럼 굴안에 들어가 아무 것도 먹지 않고 한해 겨울을 내내 잠만 자는 것이다.

(작문)

《천리마 가정》

우리 마을에서는 우리 집을 《천리마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이예요. 우리 집 식구는 모두 여섯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님, 두 누나 그리고 나예요. 그런데 이것 보세요. 방금 우리 집 온 식구는 민주 선전실에서 돌아 왔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가족 써클 공연을 했지요. 노래하고 춤 추는 아버지와어머니, 피리 부는 형님, 가야금을 타며 노래하는 두 누나, 그 누구의 앞가슴에나 번쩍번쩍 자랑스레 천리마 휘장이 빛나지요.

목청을 가다듬어 시랑송을 하는 나의 앞가슴에는 《모범 분단》 휘장이 빛나구요.

지금 내가 작문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무슨 이야기인지 오손도손 주고 받으며 잠을 못 이루셔요. 아마 마당 앞에 태산처럼 높이 쌓인 저 벼'낟가리를 두고 이야기 하겠지요. 올해의 풍년, 오늘의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실거예요.

왜정 때 최 지주 놈의 머슴을 살며 쌀밥 한 끼 못 잡수어 보고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아 온 아버지와 어머니는 늘 오늘의 행복을 가져다 준 당과 김 일성 원수님께 끝없이 끝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작년 분배 받던 날이였어요.

《너 공부를 잘 하여 이 크나큰 은혜에 꼭 보답해야 한다.》 하고 아버지는 최 지주 놈의 머슴을 살 때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어요.

하루는 지게에 벼'단을 잔뜩 질머지고 들어 오는데 《고걸 지구 굼뱅이처럼 걸어. 해가 다 져 가는데?》 하면서 지주놈이 지팽이로 아버지를 힘껏 때렸답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 잡고 들어 오던 아버지는 그만 논'두렁에서 미끄러져 개울물에 굴러 떨어졌다지 않아요.

어머니는 헌 누데기를 가리우고 형님 누나들을 거적 속에서 자랐답니다. 그렇던 우리는 지금 기와 집에서 라지오와 재봉기까지 갖추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일'손에 흥이 나지 않겠으며 노래와 춤과 웃음이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나를 때 놓은 온 식구는 협동 농장에서 힘껏 일하며 다 같이 천리마 기수가 되였지요. 날마다 하루 일을 끝내고 돌아 와서는 두 누님의 가야금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고 춤도 추지요.

이 흥겨운 우리 집 가족 써클은 늘 마을 사람들 앞에 출연하여 절찬을 받지요.

그래서 우리 집은 《천리마 가정》이라 불리요.

일도 잘 하고 노래도 춤도 학습도 다 잘 하는 우리 집올요…

평북도 운전군 운하 중학교
3 학년 최 남일

(동시)

우리 오빠 영웅 오빠

넓고 넓은 벌판 길로
뜨락또르 몰고 오는
우리 오빠 앞 가슴에
영웅 메달 번쩍번쩍

열 두 차례 기여 오른
원쑤놈들 쳐부시고
붉은 기'발 펄펄펄
고지에 휘날린

오늘은 우리 오빠
금별 메달 빛내며
500만 톤 고지 향해
씽씽씽 달려 가요.

평남도 숙천군 송덕 중 학교 단
3 분단 김 선녀

(작문) (소년 신문 지상 작문 발표회에서 3등 당선 작품)

압록강

우리 마을의 서쪽에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압록강이 흐르고 있어요.

압록강은 참 아름다워요. 형제 나라 중국도 보입니다. 봄이면 강변의 바위마다에 빨간 진달래가 곱게 핍니다. 먼 데서 보면 불이 붙는듯 합니다. 여름이면 파아란 백양나무 참나무들이 빙 둘러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목욕도 하고 고기도 잡습니다. 가을이면 더욱니 아름다워요. 강변에는 온통 새빨갛게 단풍이 들어요. 겨울에 또 압록강이 얼면 스케트도 타고 눈싸움도 하고 즐겁게 놉니다. 올해에 우리들은 압록강변의 시루봉으로 신보를 갔었습니다. 여기에 올라서니 압록강은 발 밑에서 흐르는 것 같았어요. 멀리멀리 흘러가다가 꼬리를 감춘것이 흰띠를 느리여 논 것 같아요.

선생님은 압록강을 바라 보시면서 《유격대 아저씨들이 이강을 건니서 일본놈을 쳐부시군 했습니다. …》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선생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압록강은 참 아름답기도 하고 우리에게 많은 리익을 주고 있어요. 굵은 떼'목도 싣고 내려 갑니다.

우리들은 압록강을 자랑합니다.

자강도 조산군 안찬 인민 학교
2학년 김 호송

(우화)

키 꺽다리 옥수수

이삭 팰 무렵이 되였는데 이삭 나올 념은 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키만 우줄 우줄 커나는 옥수수 한 포기가 협동 농장 강냉 포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을 한 복판에 높이 자란 젓나무가 몹시도 부러웠던 게지요.

(음좋긴 좋을거야 아침 해'살도 먼저 받을 수 있구, 그 보다 더 좋긴 온 마을을 한눈에 굽어 볼 수도 있을테니.)

그래서 키 커 보자고 마음 먹은 것입니다.

여니 옥수수들의 말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퇴비는 다 뱉아 버리고 질소 비료만 자꾸 먹었습니다.

그러니 대는 가느다랗고 키만 유별나게 껙두룩해졌지요. 어느 날 비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였습니까. 키만 본때 있게 자라던 그 옥수수는 그만이야 허리가 뚝깍 부러져 나자빠지고 말았답니다.

× × ×

제가 할 일은 하지도 않고 쓸데 없이 마음이 들떠서 하는 일은 언제나 그 끌을 면치 못하는 법

황해북도 곡산군 문양 중 학교
초급반 2 학년 정 원모

(동시)

지상락원 여기래요

오곡백과 무르익는
넓고넓은 협동벌 끼고
기와집이 일어서요
새집들이 일어서요

저 먼먼 옛적부터
우리 선조들의
피눈물 스민 오막살이 허물고
우뚝 우뚝 새집들이 일어서요

지금 마지막 기와'장을 올리며
온 마을을 굽어보는 저 아저씬
머슴살이 30년에 등이 굽은
우리분단 영철이네 아버지예요

아 농촌 건설대 아저씨들도
사무원 아저씨들도 다 나와
힘을 모아 세우는 문화 주택들
억만년 살아갈 행복의 락원

로동당이 가리킨 행복의 고지
20 만 세대 주택 고지 앞에서
500 만톤 알곡 고지 물결 치고요
2억 5천만메터 직물이 춤을 춥니다.

어깨 겯고 일어선 기와집 앞에서
사람들은 둥실 둥실 춤을 춥니다.
이밥에 고기국에 비단옷 입고 기와집 쓰고살
우리의 지상락원 여기랍니다.

함경북도 회령군 금생 중 학교
3학년 김 명덕

겨울 유희

《미국놈》 몰아 내기

1,유회장과 그의 준비
(ㄱ)유희장은 눈이 쌓여 있는 운동장으로 한다.
(L)미국놈의 모양을 한 눈사람을 만들어 놓는다.(미국놈 대가리는 흉하고 잘 떨어지게 만들어야 한다)

2,유희 방법
유희자들은 같은 수로 두 편으로 나누고 그림과 같이 일렬 횡대로 선다. 돌격 신호가 나면 목표물인 《미국놈》을 향하여 눈뭉치를 만들어 던진다. 《미국놈 대가리를 먼저 떨군 편이 이긴다.

알아 마치기 해답
(10호)

알아 마추기

어느 날 해돌이라는 애가 두 할아버지를 만났다.
해돌이—(두 할아버지에게) 안녕하세요?
첫 할아버지—오냐? 너 아래'마을 해돌이로구나.
둘째 할아버지—오냐? 너 웃마을 해돌이로구나.
두 할아버지와 해돌이네 집은 어디며 어느 할아버지가 옳게 말하였습니까?
(해답은 다음 호에)

7 호 현상 문제 해답

화물 렬차는 간선에 들어가 간선의 길이만큼 화차를 떼 놓고 그 나머지는 다시 끌고 나와 멀리 나가 선다.

급행 렬차는 이 때 정거장에 들어 와서 간선에 있는 차를 꼬리에 달고 나와 본선의 뒤쪽으로 밀고 나와 떼여 놓는다. 본선 앞쪽에 나가 서 있던 화물 렬차는 간선에 들어가 선다.

이렇게 급행 렬차가 지나갈 길을 낸다.

(그림은 략한다)

7호 현상 문제 당선자

평양시 북수 중학교 김 태일
개성시 만월 중학교 김 근식

현상문제

그림과 같은 호수의 중심에 돛배가 한척 놓여 있습니다. 그배는 바람 한점 없는 고요한 날씨여서 그냥 그 차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호수'가로 끌어 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 호수에 사람이 들어 가지 않고 혼자서 끌어 당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가요?

평북도 피현군 량책 중학교 김 장옥
평남도 개천군 자각 중학교 조 농학
평남도 개천군 개천 중학교 강 정히
함북도 김책시 성진 초등학원 강 진오
함남도 신흥군 발전 중학교 김 덕영
황북도 봉산군 구읍 중학교 원 정순
황남도 벽성군 룡정 중학교 윤 장실
강원도 평강군 평강 중학교 리 선태

속담

△나는 새도 깃을 쳐야 날아간다.
(훌륭한 재능을 가졌어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
△공든 탑이 무너지랴
(정성과 로력을 들인 일은 헛되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2년 제 11 호 (총 157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ㄱ—230602 값 25 전 150,000부 발행

(만들어 보세요)

(로케트 모형 만들기)

로케트의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 용지 도화지 3×4 mm, 길이 10 cm의 오림'대, 1×4 mm, 길이 50 cm의 고무 줄, 4×15×12 mm의 축 받치개에 쓸 나무, 풀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만드는 방법

로케트 모형은 동체부터 만든다.

동체는 직경 14~18 mm의 양철관이나 혹은 막대기로 만들며 그 우에 종이를 바르고 실로 동여 맨다. 이렇게 만든 동체가 깨끗이 마른 다음 동체 량쪽에 띠를 댄다. 타는 두 겹으로 바른 도화지를 오려서 띠에 바싹 대여 직각으로 붙인다. 프로펠라 날개는 종이 세 겹으로 하며 프로펠라의 축을 붙일 곳을 날개에 점선으로 표시하여 둔다.

프로펠라 축은 길이 60 mm의 나무로 한다. 축 중심에는 갈구리를 넣기 위해 직경 1 mm의 구멍을 뚫고 량쪽 끝으로부터 15 mm의 사이를 두고 그림과 같이 대각선으로 프로펠라 날개를 끼울 짬을 낸다.

갈구리를 구부린 다음에는 그것을 반듯이 잘 두드려야 한다.

다 만든 갈구리를 축 바치개에 꿰고 세루로이드로 두 개의 자리'쇠를 만들어 갈구리에 끼운 다음 그것을 프로펠라의 축 구멍에 넣고 끝을 구부린다. 갈구리가 프로펠라와 함께 잘 돌아 가도록 축 구멍 밑 갈구리에 풀칠 한 실을 약간 감아 둔다. 원추체에 속대를 붙일 수 있도록 웃띠의 량쪽을 조금씩 오려 내며 아래, 띠도 축 받치개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조금 오려 내야 한다. 다음에 고무줄을 꿰면 로켓트 모형이 된다.

프로펠라를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쪽으로 40~50 회 감은 다음 가만이 놓으면 로켓트는 10~15 m 높이로 올라 간다. 만일 좋은 고무줄을 써서 약 150~200 회쯤 감으면 50~60 m까지도 올라 갈 수 있다.

련재만화

바다 속의 비밀을 찾아서 (6)

① 용이—도대체 배는 어데 갔을가?
철이—모를 일이야!

그림 박 춘 삼

② 복어—손님네들! 날이 저물어 가는데 어째 여기 있어?
철이. 용이—?!
복어—흥, 상어한데 잡혀나 먹일 것들 묻는데 대답도 하지 않는군!

③ 철이—무엇이 어째?
복어—흥! 그래 날 때리겠다구?
철이—하하! 복어의 배를 좀봐! 공처럼 부풀어 오르내?

④ 용이—하하! 복어는 정말 별게야! 저건 큰 고기들 한데 습격을 당하면 그를 피할 대신 배를 룽룽 불쿼 자기가 큰 고기체 시위하거든! 하하………

⑤ 철이—형! 저 대구를 봐? 병이 난가봐?
용이—어디 아프니?
대구—응! 배가?

⑥ 용이—흠, 위병로이구나 넌 무리하게 먹는 나쁜 버릇을 고쳐야 하겠어! 자 약이나 받어.
대구—고마워!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다? 잠간만 기다려!

⑦ 철이—대구는 어째 기다리라고 할가?
용이—야! 저 불빛 봐! 깨들벌래처럼 린을 달고 다니는 고기들 말아!